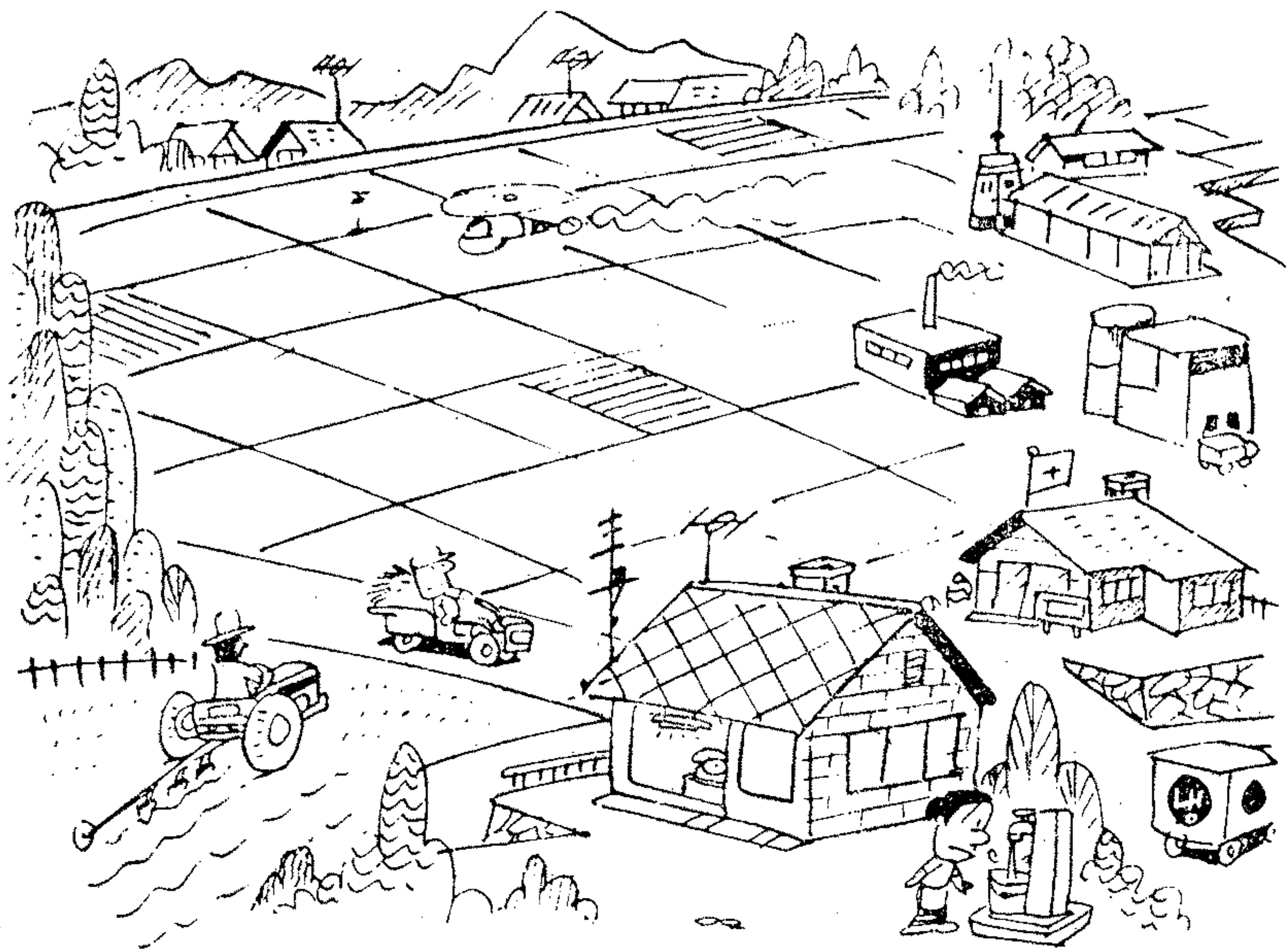


速記界

第九號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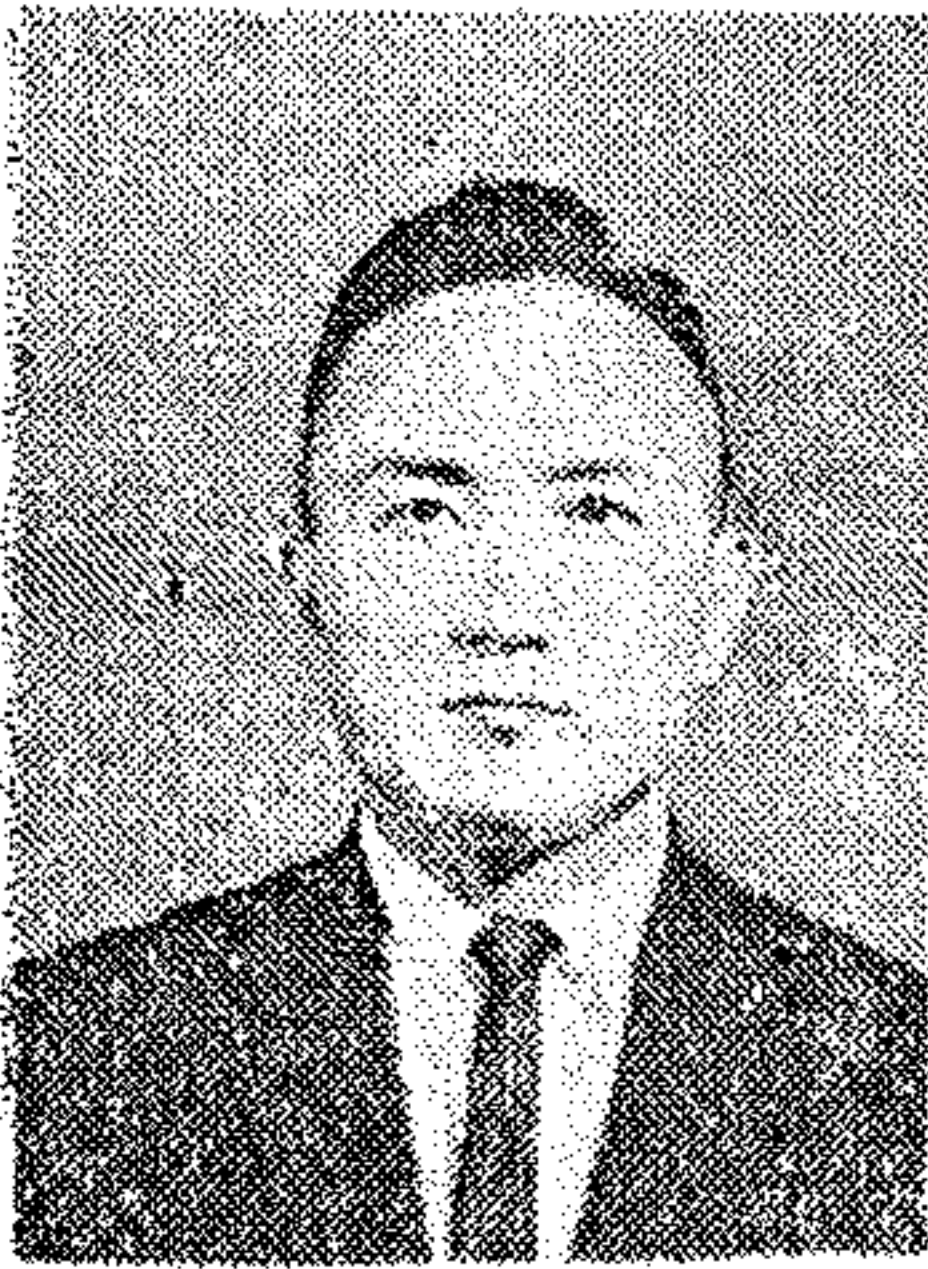
賢명한 選擇.....	會長 金 龍 泰.....	2
參與의 意義.....	顧問 李 鎬 賑.....	3
研究委員會運營方案.....	李 龍 洙.....	4
第10回 速記講習.....		6
□ 國政監查速記業務分析	金 永 春.....	7
<提 言> 會誌의 方向.....	金 東 遠.....	17
● 新入生 選拔을 마치고.....	李 東 一.....	18
● 어인 14년이.....	朴 相 昱.....	20
● 速記士와 營養.....	尹 玉 姬.....	23
□ 馬耳山 산행기.....	安 喜 榮.....	24
□ 第4回 定期總會.....		27
速記料金案内.....		35

題 字 · 海汀 朴 泰 俊
表紙그림 · 蔡 康 熙
寫 眞 · 金 善 弼

賢 明 한 選 擇

— 第10回 講習開講式에서 —

會 長 金 龍 泰



受講者 여러분

오늘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主催 文化公報部 및 朝鮮日報社 後援 第10回 冬季速記無料講習 開講에 즈음하여 이와같이 滿場을 이루어 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모처럼 이런 좋은 機會에 速記라고 하는 아주 便利한 技術을 배우게되는 여러분의 自發的인 賢明한 選擇을 높이 致賀하고 激勵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本協會 年例事業으로 實施되고 있는 이 速記講習에 뜻있는 數많은 受講者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積極 參與하여 記錄改善을 通

한 祖國 近代化 作業을 遂行하는데 앞장서 주신 여러분의 진지한 姿勢에 새삼 敬意를 表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전대 유구한 歷史를 連綿히 이어온 우리 倍達民族은 슬기로운 先祖들의 創造的 知慧로써 固有한 言語와 文字를 가지는 榮光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思想이나 感情의 表現手段으로서의 言語의 不便을 除去하고자 한데서 文字를 發明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文字란 意思를 가다듬거나 때만저서 論理的이고 體系있게 記錄할 수 있는 代身에 많은 時間을 虛費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意思나 言語를 即時 그대로 記錄하지 못하는 缺陷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即 우리들이 쓰고 있는 普通文字로서는 1分間에 100字를 도저히 따라 적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意思나 言語를 즉각 處理할 수 있고 또한 正確히 傳達할 수 있는 方法을 찾는 時代的 慾求가 抬頭되어 많은 先覺者들이 오랜동안의 끈질긴 研究와 刻苦끝에 우리나라에서도 速記文字가 創案되고 開發되고 實用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現代生活의 多角化·複雜化·分業化 現象이 이러한 速記技能需要를 더욱 要求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速記講習會는 이와같은 時代的 需要에 따라 速記의 大衆化 또는 生活化를 꾀하고 나아가서 速記人口 底邊擴大를 통한 祖國의 近代化 作業에 積極 參與코자 하는데 그 큰 意義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짧은 期間이지만 여러분의 賢明한 選擇으로 이루어진 이번 速記講習에 있어서 短時間內에 高速 速記能力을 바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 忍耐와 持久力으로 鍊磨하여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分野에서 이 速記文字를 利用한 能率向上이 盼드시 이루어지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拍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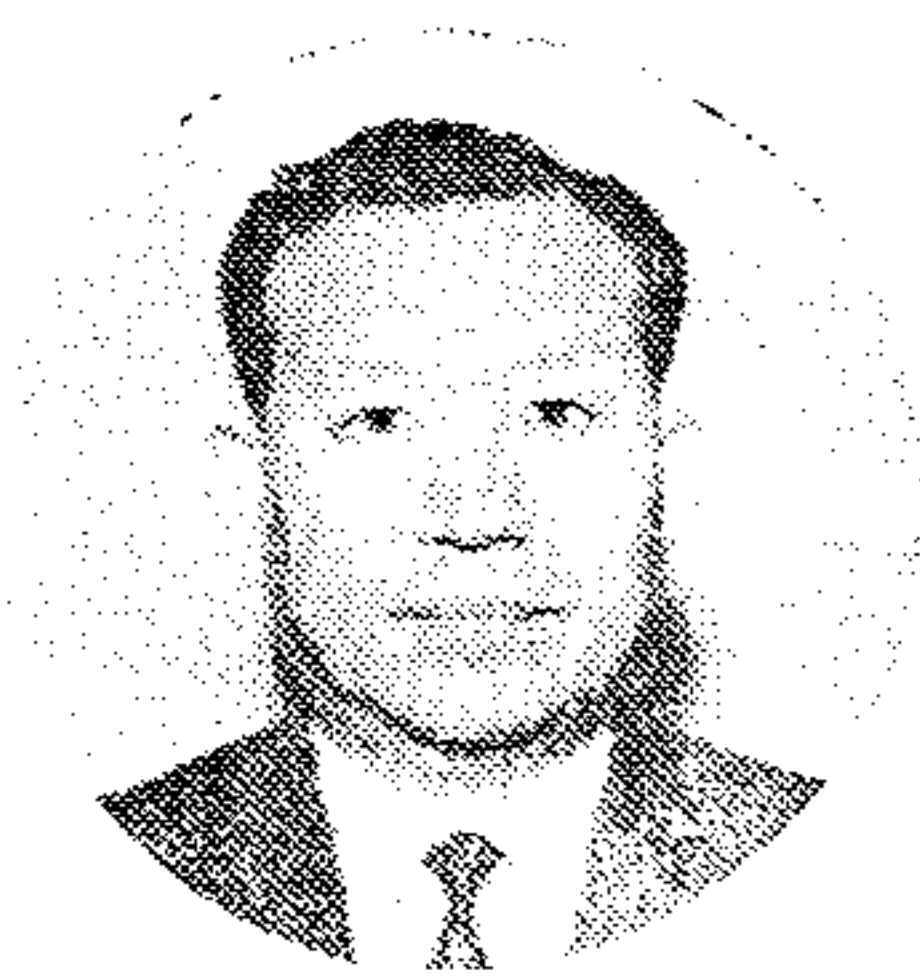
<國會議員>

(拍手) 이 講習會에 參加하게 된 여러분께 致賀드립니다. 이 致賀에는 두 가지 意味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령 저는 책을 한권 산다는 사실은 책을 한권 읽은 것과 같은 效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裝飾用으로 화려한 全集物을 사는 것과고는 意味가 다릅니다. 學費를 절약해 가며 書店에 가서 그 많은 책중에서 고르고 골라 한권의 책을 사는 그 勞苦야말로 책을 한권 읽은 것이나 다름없는 效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速記講習會에 參與를 하게 되었다는 事實은 여러분이 이미 速記를 한번 배웠다는 것과 같은 結果를 가져 옵니다.

둘째의 意味로는, 人生을 기쁘게 豐富하게 살려면 많은 分野에서 知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職業에 관련된 專功分野의 學問이나 知識에 우선 沒頭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一生의 어느때인가는 모든 分野의 學問과 知識을 익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分野의 權威者가 쓴 代表的인 作品 또는 解說書를 읽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速記協會는 速記의 權威者들이 網羅되



參與의 意義

第10回 講習開講式에서

顯 開 李 鎬 賑

어 가지고 構成된 것이므로 여러분이 이 速記協會에서 實施하는 講習會에 參席한다는 것은 權威者들의 代表作을 읽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여러분께 致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完全無缺한 速記를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演說을 들을 때에 일일이 어떤 速記文字를 써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손끝으로 그 文字가 흘러 나올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할 것이며, 둘째로는, 演說을 하는 분의 그 演說內容을 완전히 理解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常識的인 演說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理解를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醫學에 관한 講演이 있을 때에 그 醫學에 관한 內容을 理解 못한다면 速記가 되지 않습니다. 기술을 完全하게 익히는 일도 重要하겠지만 모든 分野에 있어서 어떤 분이 演說을 하더라도 다 理解하고 消化할 수 있는 教養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目標로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끊임없이 精進하시기 바랍니다. (拍手)

<國會事務次長>

1972年度

研究委員會 運營方案

李 龍 洙
(研究委員長)

지난해 年末 第4回 定期總會에서의 研究委員會에 대한 叱責과 激勵을 意識하면서 1972年度 研究委員會 運營方案을 紹介하기에 앞서 會員 여러분앞에 提示하는 研究委員會의 基本事業計劃에 대한 計劃對 實踐 成果의 一致를 다짐하고 이와같은 計劃들의 圓滿한 達成을 위해 會員 여러분의 友情있는 叱責과 協助가 平素에도 있어 줄 것이라는 것을 確信하면서 다음과 같은 1972年度 研究委員會 事業計劃을 紹介하는 바입니다.

1. 基本計劃

1. 速記 大衆化 普及을 위한 短期講習 用 速記法式 創案
2. 發言速度의 高速化에 適應한 既存速記法式의 改良
3. 速記의 必要度 增進方案에 대한 研究
4. 請託 速記에 대한 會議錄 作成(各部門別) 劃一化에 대한 研究
5. 會員 福祉向上 方案에 대한 研究

2. 細部計劃에 대한 概要

가. 速記 大衆化 普及을 위한 短期講習 用 速記法式 創案

① 內容

速記協會創立에 따른 事業目的 事項의 一環인 速記의 大衆普及을 위한 革新的인 方案으로서 短期 速記講習의 이제까지의 不合理性和 문제점들을 除去하고 短期 速記講習의 效率性을 期하며 受講者의 實質的인 實用度를 最大限으로 높여야 한다는 切實한 時宜的 要請에 適應키 위한 것으로 短時日內에 習得하기 容易하고 翻文에 負擔을 주지 않는 한글 平均記錄速度의 3倍程度 速度를 維持할 수 있는 速記法式을 研究하는 것임

② 研究基本方向

㉠ 短期 講習用 法式과 高速速記 法式과의 連結될 수 있는 法式

㉡ 한글과 速記法式과의 混用 如何

㉢ 純粹한 短期講習用的 別個의 法式

㉣ 3週 내지 4週에 習得possible한 法式

㉤ 基本 記錄速度 200字 내지 250字

※ 上記 ㉠, ㉡, ㉢, 3個項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研究 過程에서 1個項을 擇할 것임.

나. 發言速度 高速化에 適應한 既存速記法式의 改良

① 內容

當項에서 試圖하고자 하는 既存速記

法式의 高速化에 適應한 改良은 既存 速記法式 自體의 改良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現職速記士들의 實務中 難點의 하나인 各分野別 專門用語의 蒐集과 이에 대한 解說 및 各法式別 速記略字에 대한 研究임.

② 專門用語蒐集

- ㉠ 時事用語——事件別
- 社會 各分野別

- ㉡ 國會事務處 各常任委員會 所管專門用語

- ㉢ 外來語 및 造語

③ 蒐集된 專門用語에 대한 各法式別略字 構成 發表

다. 速記의 必要度 增進方案에 대한 研究

① 內容

「速記의 必要度 增進方案에 대한 研究」라는 「타이틀」自體가 좀 抽象的 이기는 하나 速記人의 共通된 念願의 하나이며 速記界의 發展과도 가장 密接한 關聯이 있는 문제의 事項으로서 速記의 必要度에 대한 速記 需要處의 未熟한 認識의 原因과 速記界 自體의 內的要因을 抽出함과 아울러 이의 타 개책으로 우선 速記需要處 및 速記未 需要處와 速記士들과의 密接化를 圖謀함으로서 相互 理解를 增進시키고

速記의 需要處를 넓히기 위한 方案임

② 方法

國會議員(高速發言之원 · 低速發言 議員) 및 國會 常任委員會 專門委員, 大企業體 運營陣 言論機關과의 速記 必要度 및 速記 需要上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 開催

라. 請託 速記에 대한 會議錄作成(各分 野別) 劃一化에 대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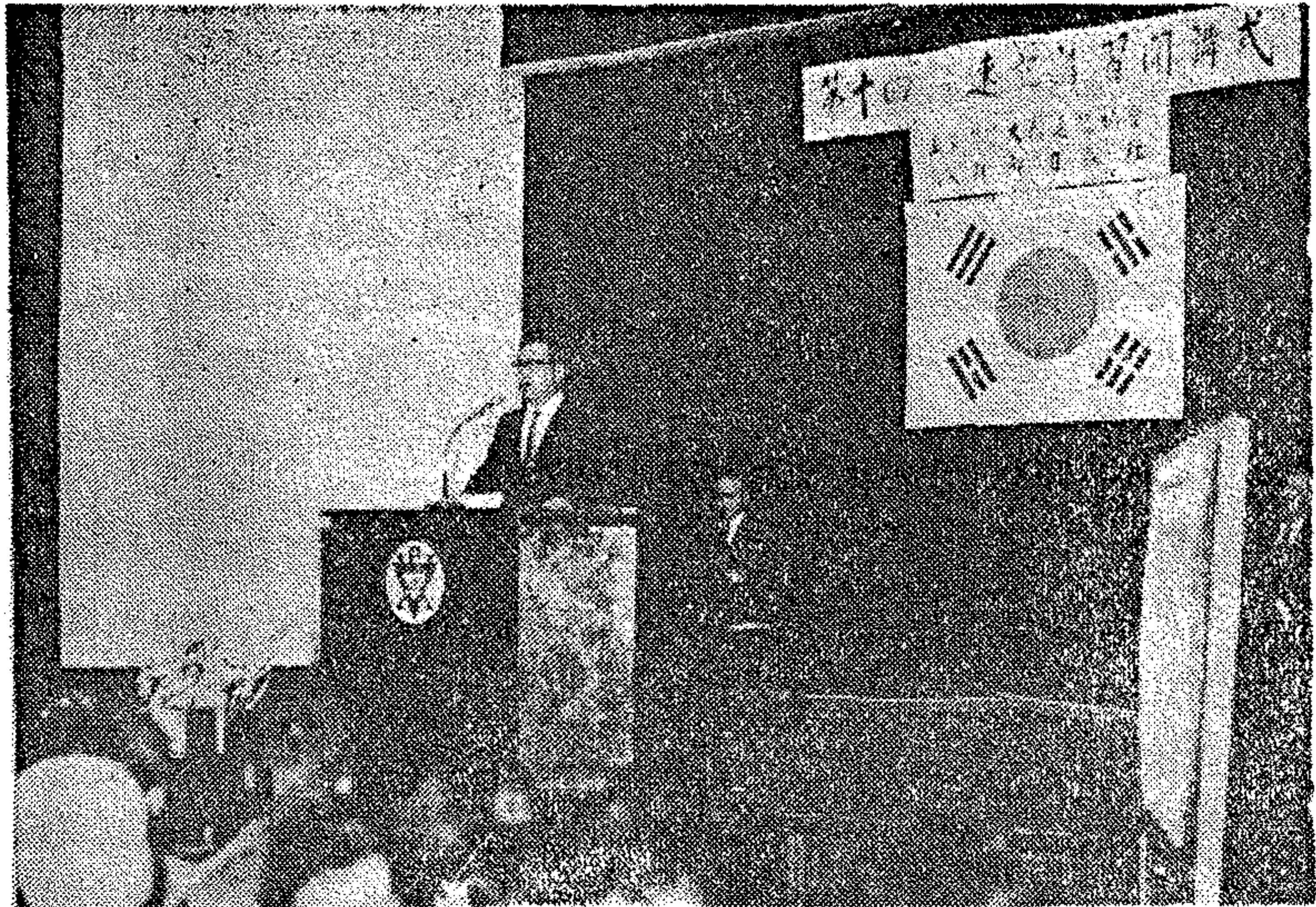
① 內容

請託 速記는 需要處와 記錄內容에 따라서 記錄의 目的과 用途가 달라지 겠으나 大概是 「證據力의 確保」와 「單純한 事實記錄의 維持」를 위한 記 錄일 것이다. 이 경우 後者인 「單純한 事實記錄의 維持」를 위한 記錄(座 談會 · 著述 · 講義速記)인 것은 國會 事務處에서의 速記錄 作成樣式과 같 은 方法으로 足할 것이 겠으나 前者 의 (株主總會 證人訊問 裁判速記)의 경우는 하나의 法律行爲인 公證行爲 와 같은 性格을 가지므로 普通의 速 記錄 作成樣式과 다른 權威있는 劃一 化된 速記錄 作成 樣式的 定立이 要 請되는바 이에 대한 研究임.

研究委員會

委 員 長	李 龍 洙
幹 事	金 永 春
委 員	高 太 仲
	朴 相 昱
	趙 遇 石
	金 善 弼
	韓 相 九
	梁 源 龍

第 10 回 冬季速記講習



(YMCA大講堂에서의 開講式光景)

72年度 協會 1/4分期事業인 第10回 冬季速記 無料講習이 지난 1月 17일부터 2月 5일까지 3週間 盛大하게 開催되었다.

總受講者 1153名 (국어速記 922名, 영어速記 231名)에서 59% 이상이 女性이 차지하고 있고 또한 過半數이상인 大學在學生이 受講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受講動機를 「체크」해 보면 대부분의受講者가 그들의 日常記錄上의 簡易筆記를 願하는 點에 一致되고 있었다. 이러한 傾向은 해를 거듭할수록 漸增되는 現象으로서 우리 말(한글·漢字)이 記錄上 劃數가 많고 쓰기에 귀찮은 點 등이 間接적으로

投影된 現象이라고도 分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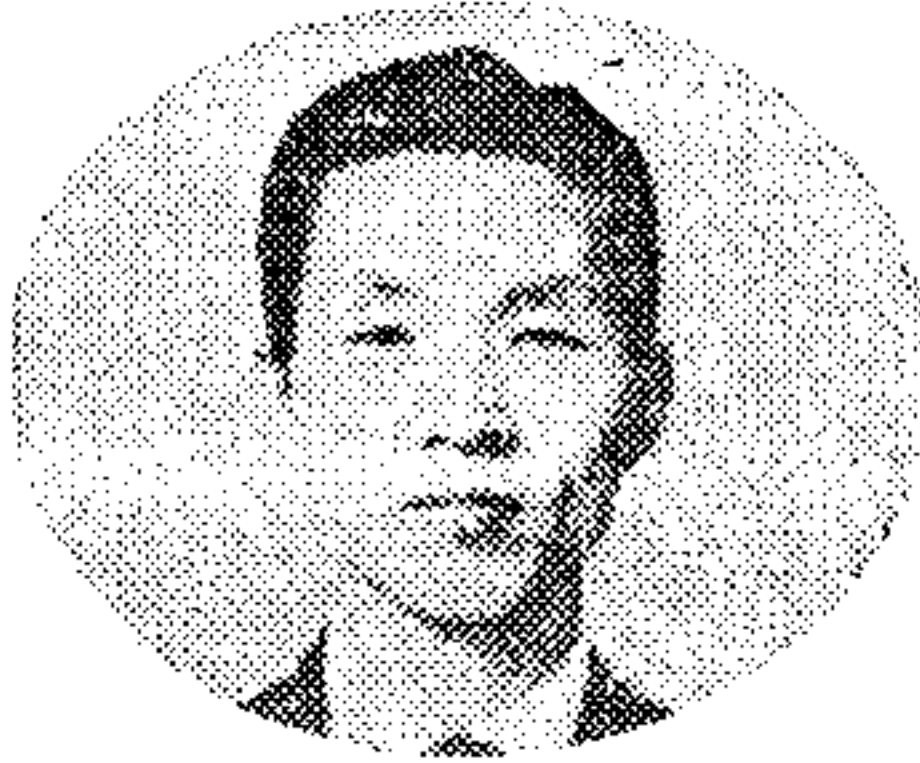
鍾路 YMCA 大講堂에서 열린 開會式에서는 本協會會長 金龍泰議員을 비롯 協會顧問 李鎬賡先生(國會事務次長), 權孝燮先生(國會議事局長)의 熱띤 激勵辭가 있었고, 安仁榮理事長의 協會事業紹介와 速記 實技示範을 보여주어 滿場의 拍手喝采를 받았다.

이번 講習의 採擇法式은 국어速記에 <東邦法式>, 영어速記에 <Gregg法式> 이었던바 3週의 全課程을 마치고 修了證을 받은 受講生은 684名 (국어 : 532名, 영어 : 152名)으로 나타났다

國政監査速記業務 分析

金 永 春

國會가 豫算審議를 앞두고 憲法第57條와 國政監査法에 의해 每年 實施되는 國政監査에 監査補助員으로서 速記士가 隨行, 監査의 開始부터 終了까지의 모든狀況을 記錄에 남겨 國會議員의 豫算審議資料를 마련해주는 業務를 擔當해 왔고 또 이 業務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의 業務를 처리해 오며 있어서 果然 그 業務들이 어느 程度의 性質의 것이었느냐? 즉 時間, 原稿枚數, 字數, 延長線, 重要度에 대해서 過히 神經을 써오지 않은 것이 事實이다.

그래서 今番에 71年度 一般 國政監査速記를 分析해봄으로서 速記業務 評價의 基準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本稿를 執筆해 보았다.

앞서 양해를 구할 것은 모든 數字나 統計는 正確性을 期하려고 努力하였으나 四捨五入 近似值等으로 計算했기 때문에 約 얼마라고 하는 多少의 數字上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 總記錄時間

總記錄時間은 國政監査後 各 委員會別 擔當 速記士들이 記錄한 總時間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委員會別로 提出한 被監査機關別業務量一覽表에 의해

서 總記錄時間을 옮겨 실었다. 그 總記錄時間의 現況은 다음과 같다.

總記錄時間現況

外務	15시간 20분.....	100時間 以下
國防	47시간 00분	
經科	52시간 50분	
保社	61시간 55분	
法司	82시간 00분	
商工	84시간 55분	100時間 以上
建設	96시간 30분.....	
交遞	118시간 40분.....	
財務	124시간 10분	
內務	129시간 30분	
文公	135시간 35분	100時間 以上
農林	158시간 22분.....	

이 現況에서 크게 나눌수 있는것은 100時間 以上을 記錄한 委員會와 100時間以下를 記錄한 委員會와의 區別이다.

즉 100時間 以上...內務, 財務, 文公, 農林, 交遞委員會

100時間 以下...法司, 外務, 經科, 國防, 商工, 保社, 建設委員會로 區別이 되는데 이中에서도 外務, 國防, 經科, 保社委員會等은 65時間 미만에 들어있어서 他委員會와 큰 時間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外務委員會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시간을 기록한 農林委員會와 比較해 보면 143시간 2분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各委員會別 監査對象의 많고 적음에 全的인 原因이 있음을 단적으로 表示한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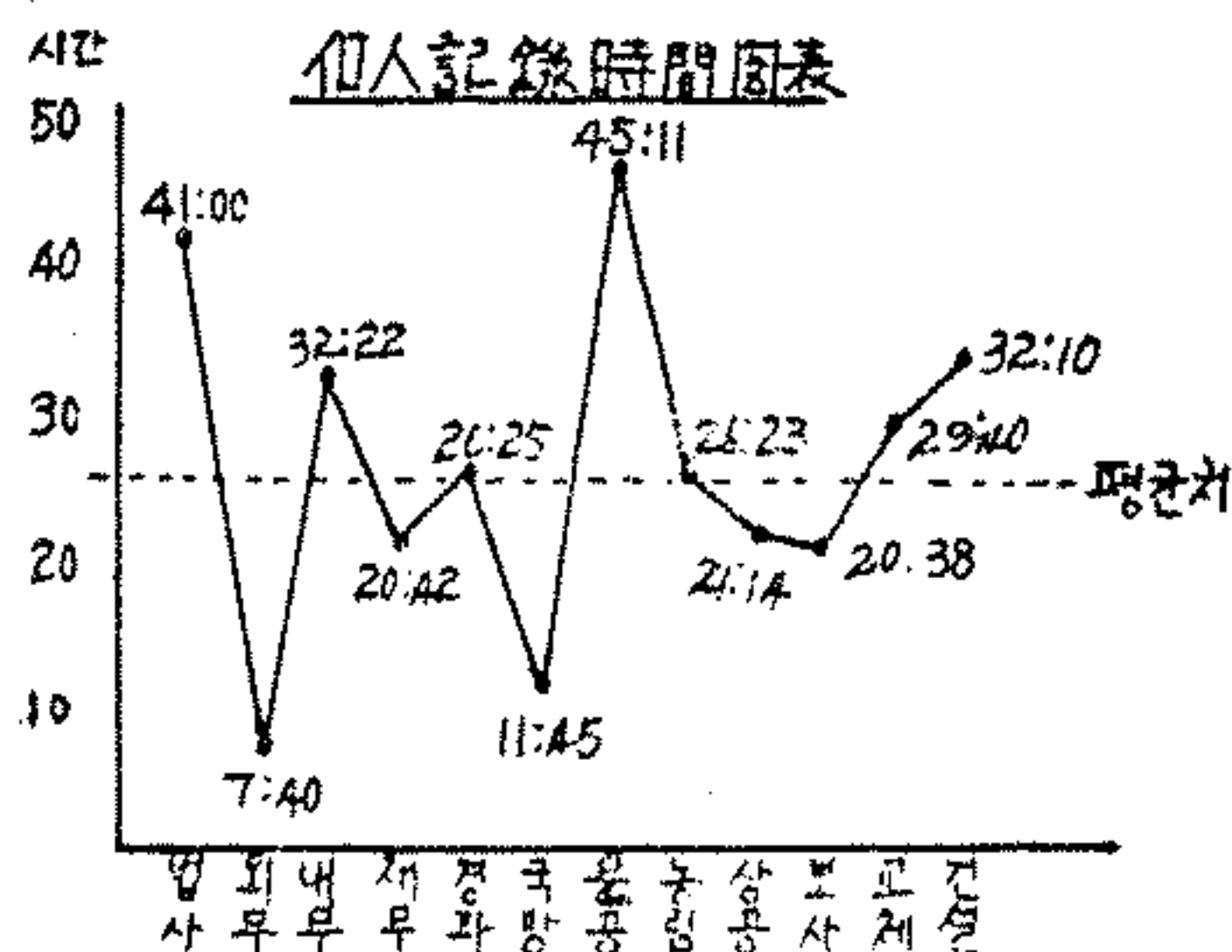
또한 國防과 같이 간혹 秘密을 要하는 委員會도 亦是 그 記錄時間이 약간은 단축됐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全體 委員會 監査時間의 추세를 보면 그 部處에 有關團體가 많은 委員會 일수록 그 記錄時間이 많았다는 常識的인 判斷과 監査班編成의 많고 적음에도 直接的인 영향이 있었음을 한눈으로 볼수 있다.

○ 個人別記錄時間

이 時間은 速記士 1人이 各 委員會別로 記錄時間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總 記錄時間을 委員會別 出張速記士 人員數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그 個人記錄時間의 現況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 있게 볼수 있는 것은 같은 數의 出張人員이라도 委員會에

따라서 그 個人別 記錄時間에는 큰 差異가 있다는 點이다.

實例를 들어 보면 다음 表와 같다.

速記士 各 2人

委員會	個人記錄時間
法 司	41시간 00분
外 務	7시간 40분
經 科	26시간 25분

速記士 各 3人

委員會	個人記錄時間
文 公	45시간 11분
保 社	20시간 38분
建 設	32시간 10분

速記士 各 4人

委員會	個人記錄時間
內 務	32시간 22분
國 防	11시간 45분
商 工	21시간 14분
交 遞	29시간 40분

速記士 各 6人

委員會	個人記錄時間
財 務	20시간 42분
農 林	26시간 23분

이와같이 委員會別 總記錄時間에도 大

차가 있었으나 여기서 委員會別로 速記士들의 個人 記錄時間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現況表에서 點線으로 表示된 平均値를 보면 26시간 15분임으로 여기에 가장 近似한 委員會를 보면 經科와 農林委員會며 財務, 商工, 保社, 交遞委員會가 各各 平均値에 近似하게 上下線을 維持하고 있으며 法司, 內務, 文公, 建設委員會는 個人 負擔量이 많았고 外務, 國防委員會는 負擔量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特異한 事實은 法司와 文公委員會의 경우 41시간과 45시간 11분이라는 많은 時間을 記錄하게 된것은 法司委員會의 경우 그 監查對象機關이 外務나 經科委員會보다 많음에도 不拘하고 中전의 例에 따라 2人을 出張시켰기 때문이며 文公委員會의 경우 3人이 出張命令을 받았으나 監查班이 2個班으로 編成된 까닭에 1個班에는 速記士 1人이 全擔해야 되는 隘路를 겪었기 때문이었음을 證明해 주고 있다.

以上과같은 事實로 미루어 볼때 次期 國政監查時는 最少限 外務委員會에 2人의 速記士를 出張시키는 基準點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調整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法司委員會는 出張 速記士를 4人으로, 文公委員會는 6人으로, 內務委員會는 5人으로, 建設委員會는 4人으로, 各各 從來보다 增員 되어야 된다고 主張하고 싶다.

國政監查時의 速記士 出張은 各 委員會의 要請에 依해서가 아니라 實質的인 速記業務의 원활한 處理를 위해서 國會速記課 固有의 獨自的 權限에 依해 알맞는 人員數를 配定할 수 있는 制度的 保障策이 아

쉽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各 委員會別 個人記錄時間의 均衡的인 調整만을 위한다면 다음과 같이 人員을 配定하면 어느 程度는 均衡있는 調整이 되리라고 보아서 이를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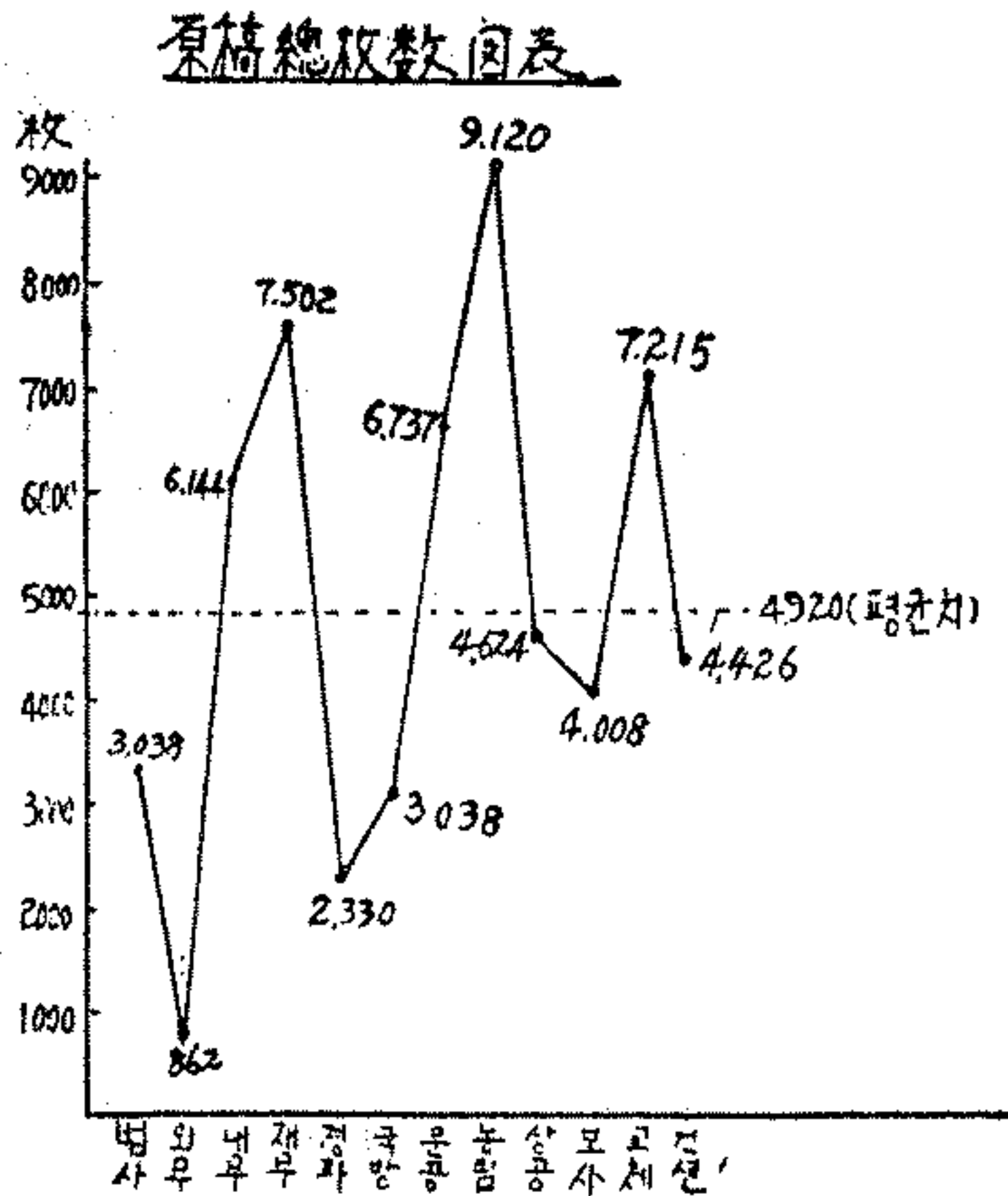
위원회	71년출장수	조정수
법사	2	4
외무	2	2
내무	4	5
재무	6	6
경과	2	2
국방	4	4
문공	3	6
농림	6	6
상공	4	4
보사	3	3
교체	4	4
건설	3	4
합계	43	50

○ 原稿 總枚數

原稿總枚數는 國政監查後 各 委員會別 擔當 速記士들이 作成해 낸 總原稿枚數가 委員會別로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委員會別로 提出한 被監查機關別 業務量 一覽表에 의해서 總原稿枚數를 옮겨 실었다. 여기에서 農林委員會는 提出한 枚數는 5,595枚였으나 이 中에는 農林部 本部에서 ipping한 量이 있어 이것을 原稿紙로 환산한 結果 9,120枚가 됐다는 것을

밝혀 둔다.

各委員會別 總原稿枚數의 現況은 다음
화갈다.



여기서의 一般的인 事實은 勿論 總記錄
時間의 많고 적음에 그 總 原稿枚數의 많
고 적음이 決定 됐다는 當然한 事實을 나
타냈으나 例外的인 事實도 있어서 總記錄
時間은 적으나 出張 速記士 人員數의 많
고 적음에도 그 總枚數에 影響이 있음을
몇몇 委員會에서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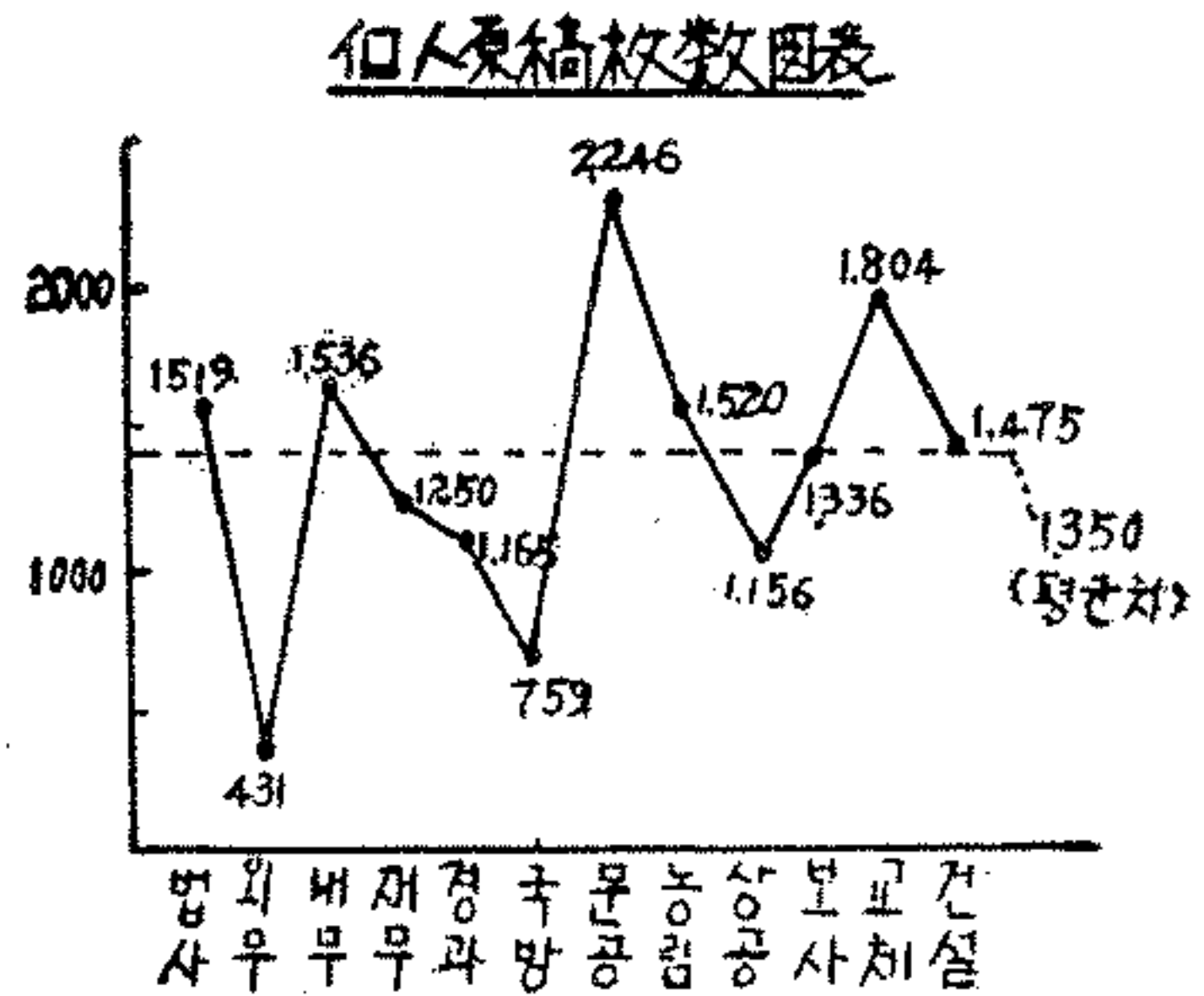
委員會	速記士人員	速記時間	原稿枚數
內務	4	129:30	6,144
財務	6	124:10	7,502
經科	2	52:50	2,330
國防	4	47:00	3,038

○ 個人原稿枚數

이 枚數는 速記士 1人이 各 委員會別로
얼마나 原稿枚數를 記錄했나를 알아보기
爲해서 總 原稿枚數를 出張速記士人員數

로 나누어 낸 數字다.

그 個人原稿枚數現況은 다음과 같다.



이 表에 의하면

委員會別로 速記士 各個人이 原稿枚數
에 상당한 差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點線 平均數值 1,350枚를 놓고 볼
때 經科와 建設委員會가 약간 쳐져있으
나 別 큰 差는 없고 亦是 여기서도 外務,
國防委員會는 各各 431枚와 759枚로서 最
下位에 머물고 있으며

文公과 交遞委員會는 各各 2,246枚와
1,804枚로서 最上位에서 그 業務의 過重
했음을 나타내 주었다.

여기에서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法司委
員會와 交遞委員會를 比較해 보면 法司委
員會의 個人記錄時間은 41시간이며 交遞
委員會는 29시간 40분으로서 法司委員會
가 오히려 11시간 20분을 더 記錄했으나
個人原稿枚數는 오히려 反對로 法司보다
交遞가 285枚를 더 記錄하고 있다.

이러한 現狀이 바로 한 委員會에 所屬
된 委員中 몇 委員의 發言速度에 따라 原

稿枚數의 量이 決定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本人이 擔當했던 交遞委員會의 경우 某 委員은 政府 및 被監查機關의 長과 一問一答式 長時間 速射式發言을 해서 他 委員보다 거의 3배의 量이 原稿紙 消費를 가져온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個人枚數의 委員會別差異는 各 委員들의 發言速度에도 左右됨을 알 수 있다.

○ 總字數

이 總字數 現況은 國政監查後 速記錄을 作成하기 위해서 原稿紙에 옮겨 실은 各 委員會別 總字數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낸 數字를 말한다.

이 字數의 計算根據는 平素 우리가 國會에서 會議錄 作成時 200字 原稿紙 1枚에(피어쓰기, 줄바꾸어쓰기 등으로 40間을 비우는것으로 計算) 160字를 記錄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總原稿枚數에다가 160을 곱해서 내 놓은 數值이다.

(例 : 法司 ~ $3,038 \times 160 = 486,080$ 字)

各 委員會別 總字數의 現況은 다음과 같다.

總字數現況

外務	137,920字
經科	372,800字
國防	486,080字
法司	486,080字
保社	641,280字
建設	708,160字
商工	739,840字
內務	983,040字
文公	1,077,920字
交遞	1,154,400字
財務	1,200,320字

農林 1,459,200字

合計 9,447,040字

平均 787,253字

이 現況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90萬字以上을 記錄한 委員會가 內務, 財務, 文公, 農林, 交遞委員會等 5個委員會로서 이 같은 추세는 總原稿枚數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이라 보겠다.

여기서 全體委員會를 合算하여 平均値를 내면 表示된바와같이 78만 7,253字로서 總字數만을 본다면 商工, 建設委員會가 平均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2個委員會를 除外한 他 委員會는 平均値 上下의 位置에서 큰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도 대조적인 現象은 外務委員會의 13만7,920字와 農林委員會의 145만 9,200字의 最小와 最大의 뚜렷함이라 할 수 있겠다.

○ 個人字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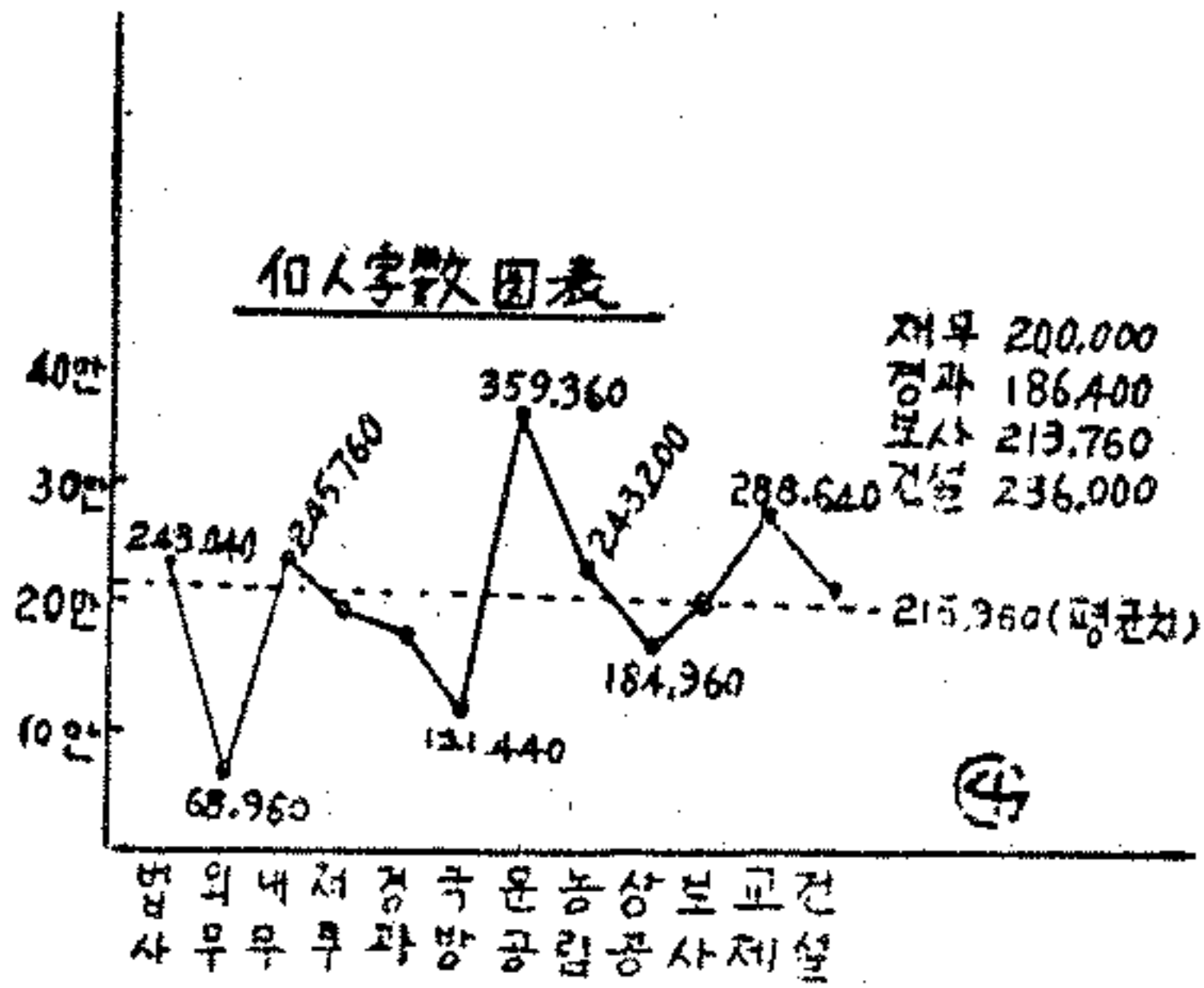
이 個人字數 現況은 各 委員會別로 擔當 速記士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程度의 字數를 原稿紙에 記錄했느냐를 알아보기 爲한 것이다.

이 字數의 計算根據는 總 字數를 各 委員會別 出張 速記士人員數로 나누어서 나타냈다.

各 委員會別 個人字數의 現況은 다음과 같다.

이 現況表에서도 보면 外務委員會의 68,960字를 除外한 나머지 委員會들이 10萬字以上 記錄한 것을 볼 수 있으며 文公委員會의 경우는 35만9,360字에 이르는 老大한 量의 業務를 個人이 處理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全體委員會를 合算한 平均値



를 내 보면 點線의 表示와 같이 21만5,960字로서

財務委員會(20만字)와 保社委員會(21만3,760字)가 近似值이고

經科, 國防, 商工委員會가 線下位에 머물고 있으며

法司, 內務, 文公, 農林, 交遞, 建設委員會가 各各 線上位에 머물고 있어서 業務의 過重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表는 個人 原稿枚數現況과 같은 線의 形態를 維持하고 있다.

○ 總字數延長線

이것은 우리가 國政監査業務를 끝냈을 때 原稿紙에 옮겨 쓴 全 글자를 길게 잡아 늘인 線의 길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計算方法은 다음과 같이 했다.

「국정감사를 실시 합니다」라고 하는 10字를 原稿紙에 썼을 때 각 글자에 대한 延長線의 길이를 알아 본다. 즉 「국」자는 mm로 計算할 때 ㄱ=4mm, 一=8mm, 一=2mm, 丿(받침)=10mm 이렇게 해서 「국」

자 한자의 延長線의 길이는 24mm가 된다.

이런 式으로 계산해서 적어 보면,

국 정 감 사 를 실 시 합 니 다
 || || || || || || || || || ||
 24 19 18 17 29 22 16 22 16 17

이와같이 分析해서 나온 10字의 總 延長線의 길이는 200mm가 된다. 그림으로 한字的 길이는 2cm라는 數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數值로 各 委員會別 總 字數에다가 곱해서 나온것이 委員會別 總字數 延長線의 길이가 되는 것이다.

法司의 경우를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法司 總字數 $486,080 \times 2 = 972,160\text{cm}$ 이것을 m로 고쳐보면 9.721m가 되며 또 이것을 km로 고치면 9.7km라는 距離가 나오는것이다. 이 距離는 전봇대로 측정한다면 전봇대 2個의 사이를 50m로 세우니까 9.7km라는 距離에다가는 約 195個의 전봇대를 세울 수 있는 距離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各 委員會別 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의 平均値는 15.8km로서 商工, 建設委員會가 近似値를 나타내고 있을뿐 他委員會는 上下로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 現況 역시 總字數現況과 直接的인 關聯이 있는 까닭에 긴 설명을 略하겠고 다만 全體委員會를 合計한 189km를 우리나라 里數로 환산하면 約 470里라는 距離가 되는 것이다.

470里의 距離는 서울에서 大田(162km)을 거쳐 論山까지 갈 수 있는 길이로서 이는 高速으로 달리는 列車로도 4時間程度가 걸리며 더구나 보행으로 갈려면 1日에

委員會	m	km
法 司	9,721	9.7
外 務	2,758	2.8
內 務	19,660	19.7
財 務	24,006	24.0
經 科	7,456	7.5
國 防	9,721	9.7
文 公	21,558	21.6
農 林	29,184	29.2
商 工	14,796	14.8
保 社	12,825	12.8
交 遞	23,088	23.1
建 設	14,163	14.2
合 計	188,945	189
平 均	15,745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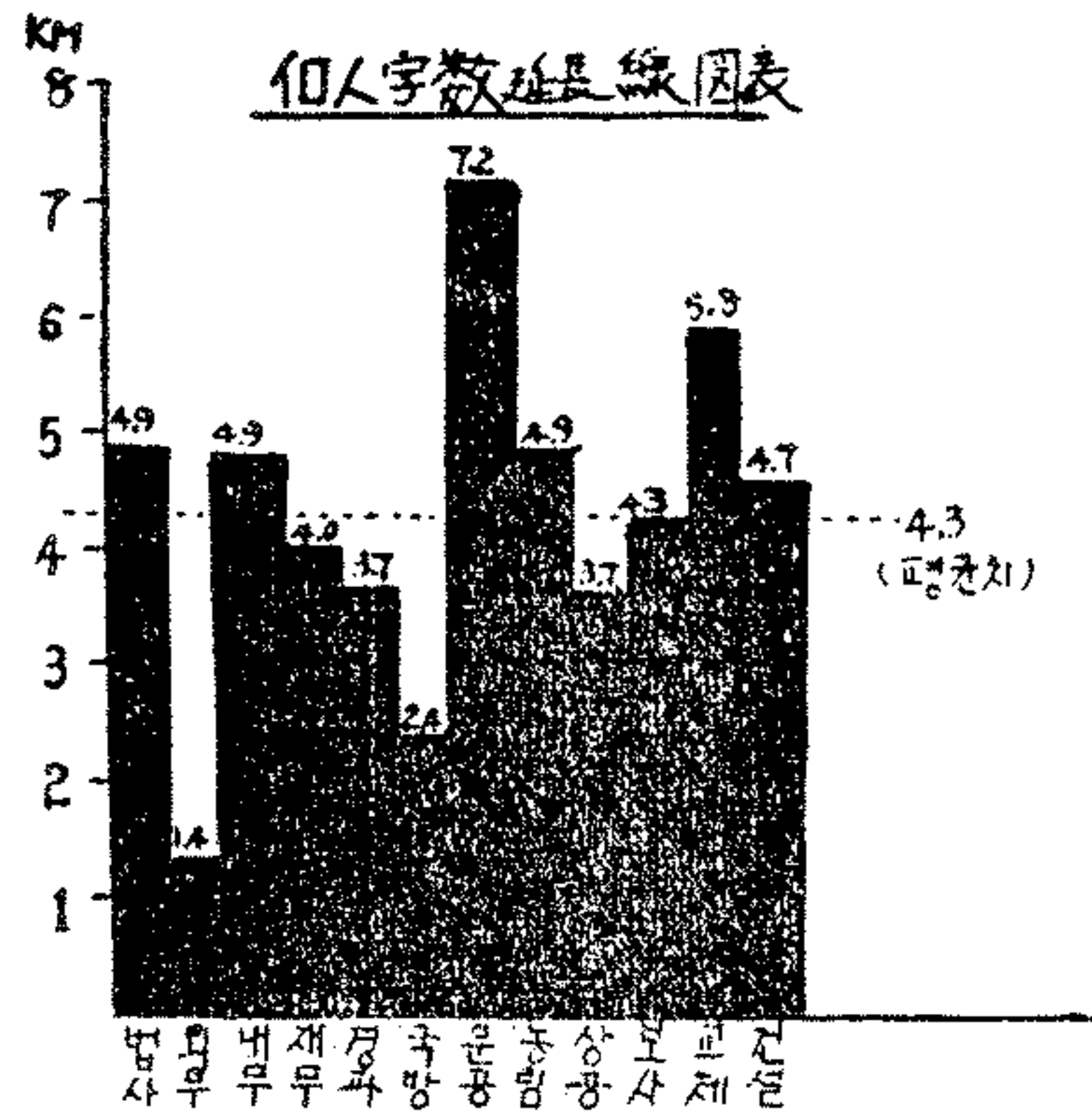
最大로 100里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5日간을 가야 되는 길이가 되는 것이다.

○ 個人別字數延長線

이것은 委員會別로 速記士 各 個人이 原稿紙에 옮겨쓴 글자를 길게 잡아 늘인 線의 길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計算方法은 各委員會別 總字數延長線 길이를 出張 速記士 人員數로 나누었다.

各 委員會別 個人字數延長線의 現況은 다음 表와 같다.

이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速記士 1人이 平均 4.3km 約 20里라는 길이를 Pen으로 그려 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 個人別速記原文 字數 및 總延長線

速記原文은 各 法式에 따라 線, 曲線, 圓, 位置等에 多少間의 差異가 있기 때문에 이를 分析하고 延長線을 正確하게 計算해 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겠으나 本人이 쓰고 있는 法式의 경우를 例로 해서 分析해 보면 前의 例인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하면 原文으로는

이렇게 表記한다.

그러면 字數로는 6字가 된다. 또한 延長線 길이는 68mm 程度로 나타난다.

그러면 字數에 있어서는 좀더 略字를 쓰거나 點等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글로 表記할때 10字라면 速記原文으로는 그 1/2인 5字로 보는것이 타당할줄 안다.

따라서 이런 計算으로 한다면 個人字數의 1/2을 우리가 速記原文으로 記錄하는 까닭에 그 字數 亦是 平均値를 낸다면

1人當 107,980字라는 字數를 더 記錄 했다는 計算이 나온다.

또한 延長線 길이에 있어서는 速記原文 6字에 대한 길이가 68mm임으로 한字的 길이는 11mm 여기에 1人當 記錄한 107,980字를 곱하면 1,187,780mm가 되며 이것을 km로 고치면 약 12km를 기록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政監查를 통해서 速記士 1人이 記錄한 總字數는 平均 약 323,940字가 되며 總延長線의 길이는 약 5.5km가 되는 셈이다.

○ 速記原文번문時間

國政監查를 隨行하는 速記士는 國政監查가 終了되었다고 해서 速記業務도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며 實質的인 作業은 이 때부터 始作된다 해도 過言은 아니다.

그것은 國政監查期間동안 速記文字로 記錄해 놓은 原文을 번문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겹치는 어려움은 國政監查 終了와 同時에 豫算審議라는 國政監查 못지 않은 業務量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二重的인 激務를 同時에 處理하면서, 또 豫算審議가 끝난後 얼마程度의 時日이 所要되는가를 알아 보았다.

번문日數 計算은 71년의 國政監查를 實例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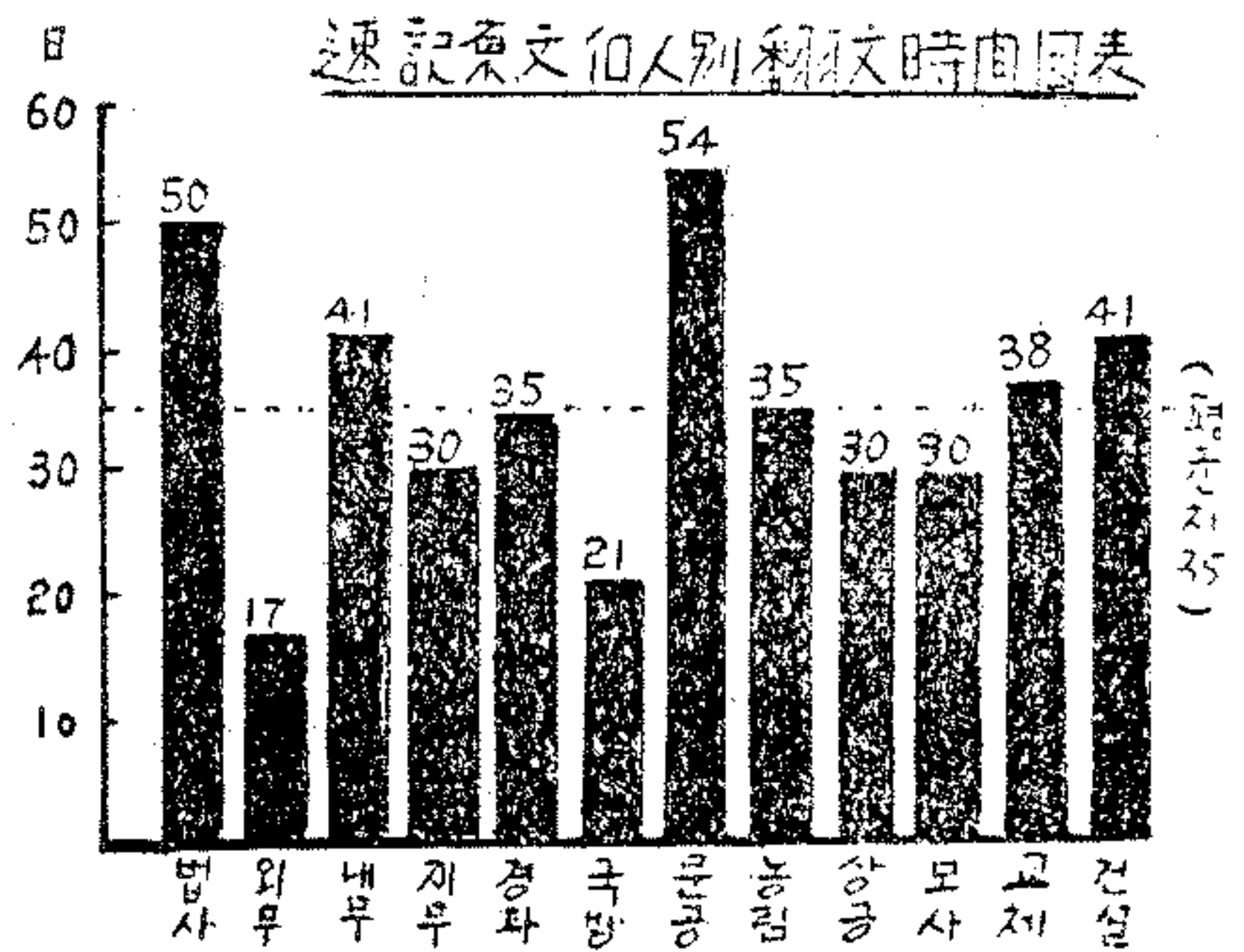
國政監查 終了日 : 11月 18日

11月 殘餘日數 : 12日

豫算 通過 : 12月 2日

國政監查 終了後 豫算通過日인 12月 2日까지는 14日간으로서 이期間은 豫算審議와 겹치기 때문에 1日에 20분짜리 原文 하나를 번문하는 것으로 計算했으며 12月 3日 부터는 1日에 20분짜리 원문 3개를 번문 하는 것으로 計算을 했다.

이와같은 計算으로 해서 各 委員會別 個人 翻文日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圖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國政監查後에도 거의가 1個月 以上을 翻文에 몰두해야 되는 것이다.

法司委員會나 文公委員會는 거의 2個月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外務와 國防委員會만이 1個月 미만에 들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老大한 量의 業務를 處理하는데도 時日을 단축, 提出해 줄것을 독촉받는 일이 비일 비재한 현실이어서 速記士들은 더욱 고충이 심해지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數字上 여러가지 方法으로 分析 檢討한 結果로 보아 國會內에서 勤務하고 있는 速記士 各者의 勞苦와 過重한 業務量은 能히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믿는다.

따라서 結論을 맺는 立場에서 上記와 같은 分析評價에 있어서 단 一回의 國政監査를 隨行했던 速記士들의 業務量과 1年間을 근무하는 一般行政職 公務員들과의 業務量을 比較해 보는것도 速記士의 勞苦에 대해서 沒理解한 사람들에 대한 理解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첫째 : 公務員의 경우 1年(365日)의 勤務日數는 273日이다. 그것은 日曜日 53日, 公休日 13日, 土曜日 53日中 半日만 勤務함으로 26일로 보면 92日이라는 休務日이 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이 볼때 速記士 個人 原稿枚數 平均值 1,350枚를 勤務日數 273일로 나누어 보면 1일에 原稿紙 約 5枚程度씩을 速記士는 每日 記錄하고 있다는 것이며 字數로는 約 800字씩을 每日 記錄하고 있다는 計算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一般行政職 公務員이 每日 原稿紙 5枚程度 字數로 計算해서 800字程度를 記錄하고 있겠느냐는 것이다.

勿論 一般行政職公務員이라고 할지라도 各職에 따라서는 그 以上の 業務量을 擔當하고 있는 職員도 있겠으나 速記士의 경우 年中 一回의 國政監査期間인 20餘日 동안에 處理하는 業務量이 거의 他職公務員 一年동안에 處理하는 業務量 程度와 맞먹는다는 事實은 大韓民國內에 100餘名밖에 안 되는 現職 速記士의 최소價値와 더불어 더욱 널리 認定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 덧붙여서 豫算審議때의 過重한 業務處理, 수시로 開會되는 臨時國會의 業務處理, 特監, 特調委等等의 業務處理까지를 合算한다고 하면 大韓民國內에 있어서는 處理하는 量에 있어서 어느

部處 어느 課의 高下職位者보다도 多量의 業務를 處理하고 있다는 事實을 알게 될 것이다.

둘째 : 大韓速記協會 速記 料金表에 의하면 速記士가 協會 會員으로서 速記請託을 받아 會議速記를 해 줄때, 1時間當 萬원씩의 料金を 받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 경우를 생각하면 1人の 速記士가 國政監査에서 記錄하는 平均時間은 約 26時間이다.

만약에 國政監査後 記錄時間에 의해서 給料를 받는다면 約 26만원에 해당하는 業務를 處理하고 있는 것이나 實質 受領額은 71년의 경우 速記士 1人當 出張費 29,000원을 旅費로 받았을뿐 速記에 대한 手當은 一切 받지 않았으므로 前記한 26만여원은 速記士 各者가 國家에 봉사했다고 自負할수 있는 것이다.

단지 公務員된 우리의 立場으로서 그러한 種類의 手當을 要求할 수는 없으나 이런 機會에 말해두고 싶은 것은 次期부터라도 速記士에 대한 旅費는 同級 行政職員과 同一하게 支給되는 弊習은 是正 됐으면 하는 所望을 남긴다.

셋째 : 速記라는 特殊한 業務는 他 行政業務와는 달리 이것은 高度의 精神力과 體力을 要求하고 있는 業務인 것이다.

會議時나 特히 監査時 發言者의 말을 한 마디라도 빼어서는 안 된다는 責任感에서 精神力을 集中하는 것과 계속되는 發言을 10分 20分 쉽없이 記錄해야 되는 그 肉體力은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記錄한 原文을 다시 번역하면서 이곳 저곳 被監査機關을 찾아 다니며 過重한 業務를 處理해야 되는 고충은 直接 거기에 任해 본 速記士가 아니고서는

理解할수 없으리라고 본다.

넷째 : 速記業務의 重要도에 대해서는 國會內의 여러 會議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監查場에서도 例外일 수가 없어서 速記士가 不參한 場所에서는 결코 監查가 開始될 수도 進行될 수도 없다는 事實로도 證明되는 것이다.

71년 國政監查時 文公委員會의 경우 1 個班에 1名의 速記士가 隨行해서 監查를 할때 監查班長은 速記士의 生理關係로 時間마다 監查를 中止시켰던 實例가 바로 速記業務의 重要도를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國會에서의 速記錄의 位置란 거울과 같은것으로서 議會의 始終을 수록한 歷史의 記錄이란 점에서 더욱 重要한 것

임을 알게 될것이다.

특히 國政監查의 경우 開始로부터 終了까지를 Film과같이 明確하게 수록하는 速記의 重要度란 動物의 심장과 다를바 없다는 한마디 표현으로 足한줄 안다.

이제 71년의 國政監查를 分析 檢討해 보고 앞으로의 國政監查를, 맞을 우리 國會 速記士들의 立場에서 마음 가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71년 以前 數次에 亘한 國政監查를 통해서 速記士들이 얼마나 많은 業務를 擔當 處理해 왔으며, 勞苦를 해 왔는가를 點檢하면서 그 勞苦와 實績뒤에는 速記士라는 存在가 있었다는 事實을 누군가가 認定해 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認定되어지리라는 當然을 내다 보면서 즐필을 맺는다. (國會速記課)

感謝牌 전달



本協會 前會長 崔致煥先生(現京鄉新聞社長)에 대한 感謝牌 전달式을 지난 1月 28日 市內 外交俱樂部에서 가졌다. 新任 金龍泰會長으로 부터 感謝牌를 받아든 崔前會長은 國政의 要所 要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速記士들의 勞苦는 잊혀지지 않을것 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다른 側面에서 協會를 도울 것을 다짐 하였다.

會誌의 方向

金 東 遠

이 글은 어떤 個人이나 또는 여기에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무슨 個人的인 感情이나 또는 平素 유감스러움이 있어서가 아니고 보다 進一步한 來日에의 方向으로 改善해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소박한 心情에서 펜을 잡은 것입니다.

速記協會의 創立과 아울러 이 會誌를 發刊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無限한 기쁨과 자랑스런 마음을 不禁하는 바입니다.

우리 會員들의 意見의 진술 또는 改善點 나아가서는 速記協會의 나아갈 方向提示 等等을 掲載함으로서 執行部로 하여금 覺醒劑가 될 수 있고 우리 協會의 公器의 役活을 할 수 있다는 데 社會의 新聞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看過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新聞과같이 會員의 가려운 점 괴로운 점 또는 하고 싶은 말을 이 會誌가 會員을 代身해서 會員의 편에 서서 문제를 제기해 주고 協會를 鞭撻해 줌으로서 執行部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하고 미처 몰랐던 점을 알려줌으로서 더 나은 協會의 發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만이 우리 協會는 他人들이 부러워하는 協會로 될 것이요 會員들은 速記界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존경심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8號를 發刊하기에 남모르는 努力과 괴로운 점을 안고 싸워온 것을 이미 애기를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딘지 모르게 內容自體가 建設的인 批判이

없는 方向으로 엮어져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禁치 못하는 바입니다.

勿論 經驗談이나 詩나 報告書形式의 羅列도 나쁜것은 아니겠으나 아직 우리 速記協會는 創立된지 日淺하기 때문에 改善點 앞으로의 方向提示 또는 문제점 등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等等의 意見을 모아서 方向을 提示해 주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보이는 面이 좀 未洽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狹小한 紙面을 통해서 會員들이 잘 알지 못했던 點等を 실기는 했으나 次號부터는 더 紙面을 割愛해서 協會의 發展을 爲해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이 是非非를 가려서 좀더 建設的인 批判과 옳바른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勇氣와 姿勢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協會에 대해서 좋아리를 때려줄 수 있는 即 10가지 事業中 9가지 일을 잘 하고 나머지 한가지 일을 잘못 했다고 했을 경우, 그 아홉가지 잘한 일에 대한 讚頌歌를 부를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한가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그 잘못된 한가지에 대해서 불만을 表示하는 會員들을 代身해서 냉혹한 批判을 躊躇치 말고 계속 일깨워주고 두드려주는 役活이 本會誌의 任務가 아닌가 思料됩니다. 이런 任務를 다 하지 못할때 本會誌는 우리 會員들로 부터 사랑과 존경심이 멀어질 것입니다. (國會速記課)

國會速記士養成所

新入生選拔을 마치고

李 東 一

一. 應募者現況과 選拔經過

國會速記士養成所 1972學年度 新入生の 應募現況과 選拔經過는 다음과 같다.

1. 募集期間 : 1972. 2. 19~2. 25
2. 總應募者 : 838名(男501名 女337名)
3. 一次試驗日(筆答) : 1972. 2. 28
4. 試驗場所 : 建國大學校 2部大學
5. 一次試驗應試者 : 810名(28名缺試)
6. 試驗科目 : 國語·一般常識·論文
7. 一次試驗合格者發表日 : 1972. 3. 3.
8. 一次試驗合格者數 : 249名

(總300點滿點에 180點以上 得點者)

9. 二次試驗日(面接) : 1972. 3. 4
10. 面接內容 : 適性·素養·容貌
11. 二次試驗應試者 : 228名(21名 缺試)
12. 最終合格者發表日 : 1972. 3. 8
13. 最終合格者數 : 100名 (男72 女28)

二. 例年과의 差異點

첫째 應募者의 數的인 面에서 急激한 增加를 보았다는 點을 들 수 있겠다.

- 即 1期生 680名中 60名
2期生 648名中 100名
3期生 416名中 100名
4期生 628名中 100名
5期生 838名中 100名을 選拔함으

로써 比率로는 1期生이 10對 1로써 가장 많

은 比率을 示顯하고 있으나 이는 8年間の 養成機關의 空白期間이 있었다는데 緣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一期生の 境遇를 除外하면 今年의 8.4對 1이 가장 熾熱한 競爭率을 이룬 것으로 이는 그간 速記界의 活躍相(無料講習, 展示會, 新聞 雜誌 放送 TV를 통한 PR)에 힘 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一次試驗에 있어서 昨年보다 微微하기는 하나 多小라도 受驗生이 實力面에서의 向上을 들 수 있으며 보다 優秀한 學生을 選拔할 수 있었다는 點이다. 即 4期生 應試者 615名中 181名이 合格하여 그 比率은 29.43%이나 5期生은 810名中 249名이 合格하여 30.07%로써 0.54%의 合格者의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過去에는 面接試驗에 있어 總括的인 採點制를 擇하고 面接을 2個 Part에서 施行하였으나 今次에는 이를 適性 50% 素養 20% 容貌 30%로 配點하고 3個 Part에서 각기 面接分野를 分擔함으로써 좀더 合理的인 選拔을 하게 하였다.

三. 選拔過程에서 浮刻된 問題點

먼저 가장 아쉬운 것은 科學的인 適性 檢査施設을 갖추어서 言語能力 暗記力 忍耐力 形態知覺力 손과 눈의 協應能力 聽力 注意力들을 正確히 檢査하는 것인데 制

限된 豫算으로 莫大한 經費를 投入하여 機材를 導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用役을 주어 適性檢査를 할 수도 없는 어려운 形편에 處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筆答試驗 成績은 優秀하나 修學 不適格 判定으로 一部人員이 不合格되는 境遇이다.

頭腦가 우수하고 能力있는 速記士로 成長할 수 있는 可能性이 發見되는 者를 選拔하여 職業速記士로 養成하는 것이 國家 豫算으로 運營되는 當養成所의 基本目標

요 方針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與件으로 보아 修學中 脫落할 素地를 지니고 있는 人을 事前에 除去 시킴으로써 餘他 꼭 速記를 배워서 職業速記士가 되고자 하는 善意의 3者를 救濟하여야 하는데 그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適性判定을 받아 合格하였으나 事情에 依하여 本人이 中途脫落하는 것을 未然에 防止하는 方案을 講究하는 것 等이다. (國會速記第2係長)

用 語 集 (第 2 回)

Nixon shock 日本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서 ① 日本이 中共과의 關係개선을 시도하고 있던 차에 倭란간 Nixon이 中共방문을 발표함으로써 日本이 받은 충격 ② Nixon이 취한 「달러」방위 조치로 日本이 받은 충격

Brezhnev doctrine 소련이 소위 사회주의 국가의 내정을 간섭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주권 제한론

Ost politik 西獨 「브란트」 정부의 對東歐政策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to Communist Area) 對공산권 수출 통제위원회 (본부는 「파리」)

Paris List COCOM 회원국간에 금수하기로 합의된 수출 통제품목 일람표

리스産業 일정한 자산을 구입하여 그 자산의 이용자에게 빌려주고 그 넷가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일종의 대여업.

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미·소간 전략무기 제한회담

Stagflation (Stagnation과 Inflation의 합성어로서 불황속의 「인플레이」

Term Loan 중장기 할부대출. 대출이자 가 낮고 분할 상환할 수 있다.

UNDP (UN Development Program) 「유엔」 개발계획

Hot Line 유발전쟁이나 오산에 의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워싱턴」과 「모스크바」 간에 개설된 직통전화 63. 8. 31 개통.

兩建預金 대기업들이 자기 자금은 은행에 예입하고 기업운영자금은 다시 은행으로 부터 차입 충당하는 것.

權衡査定 조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별 납세자별로 소득 표준률을 조정하는 것.

(연구위원회 제공)

어 언 14년 이

朴 相 昱
(舊名 朴 光 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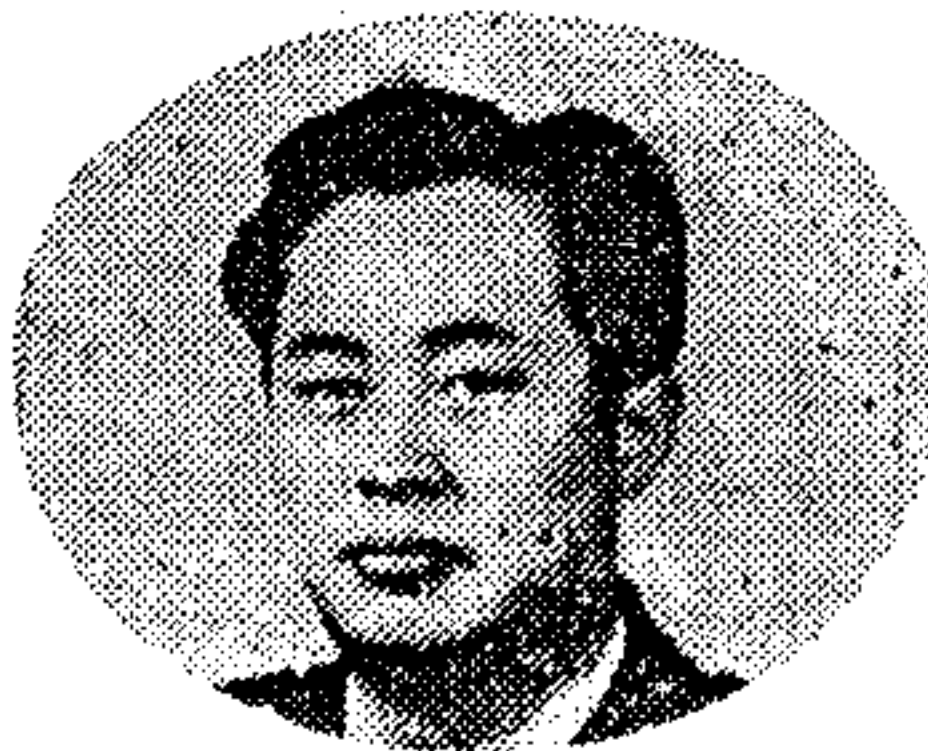
10년이면 江山도 變한다는 말이 있다. 그동안 속기와 인연을 맺은지도 어언 14년이 흘러 속기에 처음 손을 댈 당시 홍안소년같았던 내 얼굴에 벌써 한두금 잔 주름이 일기 시작했으니 어찌 인생무상을 읊조리지 않겠는가?

지금은 速記士養成機關으로서 國會內에 國會速記士養成所 東邦速記學院等 몇곳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속기를 처음 배울 당시에는 여기저기 私設學院이 산재 해 있었다.

이중에서 우연히 高麗速記法式을 擇하여 當時 貫鐵洞에 있던 학원에서 1年餘의 피나는 高速度 訓練이 계속되었다.

물론 속기사의 登用門이라던 國會에의 靑雲을 품고…… 그러던중 4.19혁명의 副產物인 上下兩院制를 제기로 當時 民議院 事務處에서 實施한 國會速記士試驗에 응시하여 合格의 소식이 傳해졌을때의 기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정말 직업인(?)으로서의 내 인생은 出發한 셈인데 지금 생각하면 응시당시 감독관으로 활약하던; 現在의 많은 선배 속기사나 상사들이 무척 부러웠기도 했는데 이제는 내 자신도 가끔 이런일을 보게 되었으니 아마 요사이 응모하는 분들도 亦是 마



찬 가지로 當時의 내心情과 같이 나를 부러워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14년이란 속기생활의 年輪의 泡沫속에는 수다한 이야기들이 도사려 있지만 그중 몇가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중 하나는 民議院당시의 일인데 당시의 봉급「베이스」는 꽤 많은 편이어서 나는 검소한 생활과 미래의 생활터전을 닦기 위해 저축을 「못토」로 생활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직장에서는 契라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래서 저축의 수단으로 契를 들었는데 그때나는 신입사원격인 弱點(?)때문에 선배의 강요(?)에 의해 소위 나쁜 변호만 몇개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의 기간만 지나면 나도 다소나마 목돈을 만져본다는 希望을 안고 꼬박 꼬박 불입하였으나 내가 탈 차례가 되

기도 전에 5.16을 맞아 國회해산의 쓰라림을 당하니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밀려나게 되는데다가 그 고사리같은 손으로 불입한 契 돈도 한푼 못 건지고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졌으니 社會 뜻내기인 나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우리 직업의 특수성때문에 혁명

정부기간중 잠시나마 內務部와 建設部에 몸을 담게 되어 主로 機關長의 記者會見과 弘報活動에 참여하게 되어 일부분이나마 혁명의 과정을 實感했는데 當時 韓信 內務부장관(現大將으로 一軍司令官)의 서민적이면서도 부정을 응징하려는 초인적인 자세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바 있으며 또 한가지 잊혀지지 않는것은 그후 민정 이양과 더불어 다시 국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약 1년뒤에 國會의 年例行事요 國會의 固有한 權限이기도 한 國政監査가 있었다.

마침 나는 內務委員會에 배속되어 內務委員 여러분과 같이 地方監査에 나서게 되었는데 慶北道 감사시 大邱驛에 도착하게 되니 例의 道知事以下 道간부들의 驛前안 내를 받으며 各者 지정된 車로 모 호텔에 案内되어 여장을 풀었다.

그래서 나의 지정된 號室에 들어가 조금 있으니까 몇 몇 道의 과장들이 인사오는것까지는 좋았으나 여기서 웃지 못할 「년센스」가 벌어진 것이다.

연령으로 본다면 나의 先親과 同年輩라 할만한 분들인데 들어 오자마자 “저는 道의 ○○ 課長입니다”하고 舊式 큰 절로 人事를 하니 너무나 의외라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나도 어쩔 수 없이 舊式 큰 절로 人事를 對하면서 서로 명함을 교환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 것만은 벌써 8년이지났건만 해마다 國監시기만 되면 으레이 되살아나 홀로 웃음을 지을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보통 인사교환은 허리를 구부리며 악수로서 그치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이분들은 너무 한 것 같았다. 필경 선조때부터 예의 범절이 엄한 가정의 인습때문이 아니

었나 싶다.

속기생활 14년의 歷程속엔 아직도 수다한 이야기들이 도사려 있지만 지면관계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래도 국회생활 10여년에는 박봉이나마 安定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이제는 결혼도 해서 아이도 하나 둔 어엿한 가정으로 성장도 했고 또 <國政을 내 손으로>라는 國會速記士의 긍지와 사명감이 내 몸에 밴 직업인이 되기도 하여 보람된 나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날을 회상해 볼 때 무척 아쉬웠던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 꼭 후배들에게 하고싶은 얘기가 있다.

요즘 20代 후배들을 보노라면 마치 지난날의 내 자신을 보는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國會速記課는 休會期에는 時間이 많은 곳이다. 이 많은 時間을 요령있게 선용한다면 얼마나 스스로의 滋養素가 되겠는가 생각해 본다.

내가 국회에 근무한 10년餘에 항상 무엇인가 지금보다 좀더 보람있는 일을 해서 국가에 기여 하겠다는 생각은 있었으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 했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人生에 있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어딘가 항상 남보다 다른 思考와 행동으로써 실천을 해 온 데에서 비로소 얻은 고귀하고도 알찬 열매라고 볼때 이제부터라도 나 自身은 勿論 특히 20代의 후배 여러분은 다시 한번 대오각성하여 目標와 計劃을 세우고 실천에 옮길줄 아는, 그래서 하루 하루가 정말 값진 人生항로를 걸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새해에는 더 나은 새로운 人生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내가 처음 國會에 발을 들여놓

을 당시 선배들 특히 나이 많은 분들과 같이 어깨를 마주하고 근무했을때 內心으로 어딘가 그분들은 무능해 보이기도 했으며 막연하나마 나는 저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분들 보다는 낫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아마 新入한지 얼마 안되는 20代의 후배들도 한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므로 이 좋은 여건에서 무한한 젊음의 精氣를 품고 해이된 마음을 가다듬어 비록 비장한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속기를 배울때의 자세만이라도 꾸준히 간직하고 무사안일주의에서 탈피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전진할 때 무엇인들 달성이 안 되겠는가? 감히 한마디 해두고 싶다. (國會速記課)

消

息

◆ 秘密取扱認可證 更新

國會速記士의 速記業務上 秘密을 다룰 수 있게 하기위한 秘密取扱認可證이 今年 1月 1日附로 새로 一齊히 更新되었다.

◆ 教育

지난 2月 1日부터 5日까지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國會速記課 全職員에게 <한글 맞춤법>과 <外來語表記法>에 대한 特別教育이 實施됐다. 講師엔 大韓教科書의 이승구 先生.

◆ TV 出演

國會速記課 金明式嬢이 지난 2月 23日 TBC-TV <퀴즈 百科>에 出演, 速記示範을 보였으며

亦是 國會速記課 鄭桂泳嬢이 3月 4日 MBC-TV <어린이 마을>에 出演, 速記實技를 해보였다.

◆ 卒業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는 지난 2月 19日 第4期卒業生을 내었다. 卒業總數 29名 (男 17名, 女 12名) 中에서 首席卒業者는 이승철(男)君으로 알려졌다.

◆ 女大 速記班

지난 3月初부터 서울女大 英文科 3, 4學年에 대하여 英語速記(Gregg)가 講習되고 있다. 講師엔 協會 外國語部長 盧英民先生이 擔當하고 있다.

◆ 採用試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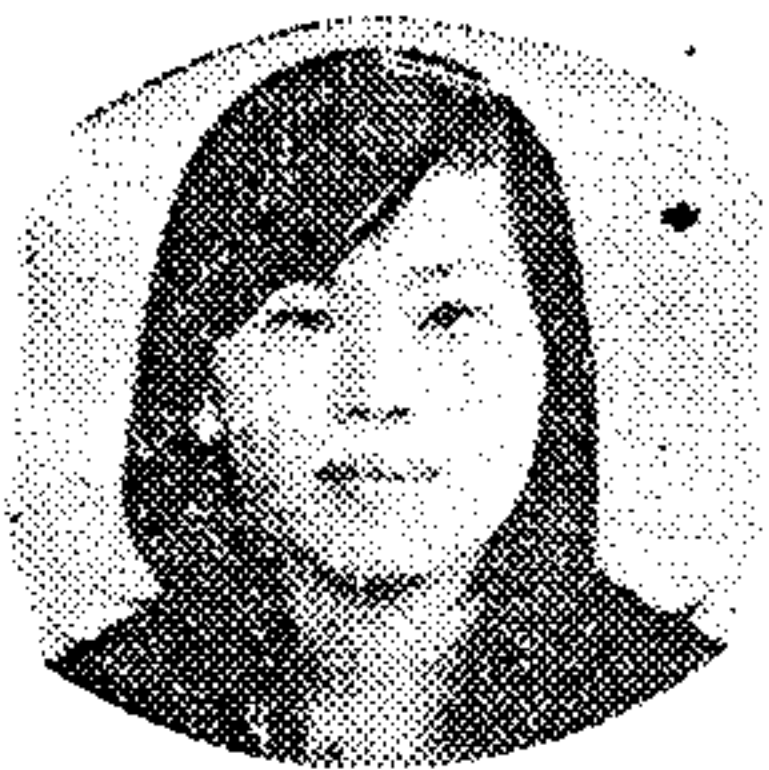
國會事務處에서는 72年度 國會速記職 公務員 公開競爭 採用試驗을 4月 10日 實施하는 바 接受마감은 4月 9日까지로 돼 있다. 1次(實技) 2次(學科) 3次(面接)를 거쳐 最終合格者發表는 4月 15日이다.

◆ 日參議院速記課長 來韓

지난 3月 25日 日本 參議院事務局記錄部 速記第3課長 神崎昌雄氏가 國會事務處를 來訪하였다. 事務處側에서 尹東寶議事副局長, 崔興俊速記課長, 金鎮基速記擔當官이 氏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速記懸案문제에 대한 意見을 나누었다. 그런데 神崎氏는 田鎖式 速記士로서 40餘年 速記界에 몸을 담고 있다고.

速記士와 營養

尹 (國會速記課) 玉姬



營養이라고 題目은 붙였으나 具體的으로 과고 들어가면 限없이 전문분야가 되고 해서 우리에게 關係되는 常識的인 것만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食品이라 함은 한가지 이상의 原素를 包含한 原素 그대로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食物과는 區別된다.

食物이란 食品을 먹기 좋게 調理해 놓은것을 말한다.

사람은 때때로 食品(食物)에 依해서 健康을 害치고 때로는 病을 앓기도 한다.

그 가장 큰 原因은 食品(食物)의 부패, 變패, 또는 有害미생물, 有害化學物質에 依한 오염等으로 일어남으로 이러한 食品들은 排除되어져야겠다.

이러한 完全한 食品調理다음에 提起되는 문제는 그 食品속에 含有된 營養價 문제이다.

營養이라 함은 人體의 新陳代謝에 必要不可缺한 物質을 攝取해서 人體機能을 維持調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이 食品은 營養과 函數관계가 密

接한 것으로서 精神勞動에 從事하는 우리 速記士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食品을 攝取하고 좋은 營養價를 攝取하느냐가 가장 重要한 問題이다. 대개 營養素에는 6大營養素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即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등으로서 이 6가지의 營養素中 어느것 하나 不足하더라도 身體에 이상이 생기고 腦活動의 低下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器管障礙를 同伴한다.

특히 動物性蛋白質, 칼슘, Vitamin A₁, B₁, B₂, C 등은 腦活動을 많이 하는 速記士들에게 가장 必要不可缺하고 또 不足하기 쉬운 營養素이다.

速記士의 도시락의 경우 醬갈한것을 조금 넣는 것에서 싱거운것을 많이 넣는것으로 차츰 차츰 食性を 바꾸어 나가야겠다.

또한 밥은 흰쌀밥만의 偏食보다는 營養도 좋고 費用도 적게 드는 밀가루 음식이 훨씬 速記士에게 理想的이다.

그러면 여기 우리 速記士의 理想的인 하루 點心食單을 보기로 하자.

速記士의 점심食單

식품명	재 료	분량	열 량	단백질
토스트	밀가루	70g	247.8cal	7.8g
	버 터	7"	50.1"	0.04"
	계 란	50"	80.0"	6.3"
Soup	쇠고기	20"	53.1"	1.68"
	감 자	30"	21.6"	0.7"
	양배추	10"	2.9"	0.15"
	당 근	20"	8.2"	0.4"
	버 터	5"	35.8"	0.03"
커피	설탕	5"	19.3"	
소 계			518.8"	17.1"

글을 별로 써 본 일이 없는 나에게 마
이산 여행기를 쓰라고 하니 먼저 무엇부
터 서두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행은 재미 있었고 기
록에 남기기 위해(?) 생각을 정리해 보
겠습니다.

1972년 1월 29일 오후 1시 우리의 역사
적인 산행은 국회 주차장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행 모두 40명 그리고 우리 조 5명 입
니다.

하느님도 아셨는지 하늘에서는 바람을
동반한 눈이 난무를 하고 있고
버스 뒷자리에서는 우리들이
타의에 의한 울동을 시작했으
나 행운권 추첨에서는 재수 좋
게도 물주머니 하나가 당첨이
되어서 한껏 신이 났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만
그것도 고급 화물차밖에는 추
월할 줄 모르는 우리 국회「버
스」였지만 그래도 4시간 반을
무사히 달려 5시 반쯤 어김없
이 全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조그마한 말썽
은 터졌습니다.

우리들의 주식이었던 빵을
배고픈사람에게 주고 다시 석
식거리를 사러 갔었던게 잘
못이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줄곧 뛰어갔
다 왔는데도 차는 나때문에 떠
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의는 아니었지만 많은 일행들의 시간
을 빼앗은 것은 참 미안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빵때문에 창피하게 유명해

져버렸습니다.

「버스」에 「체인」을 감고 어스름해지는 저
녁녘에 다시금 全北鎭安으로 떠났습니다.

4시간 동안을 줄곧 L씨 특유 internatio-
nal form의 「원맨쇼」로 시종 허리를 못펴
던 우리들은 저무는 날의 빛나는 눈 그리
고 산마을들을 보며 집을 떠나 왔다는 향
수에 모두 젖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
저리간다는 <곰치재>로 접어들면서 부
터 시종 가슴이 조마 조마 했습니다.

L씨는 어렸을 때 엄마 주머니에서 10
원 흙친 것 밖에는 죄가 없다
고 하느님께 빌었다는 고개인
데 한쪽은 낭떠러지였고 꼬블
꼬블 험했습니다.

걸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나
도 옛날에 버스값 안 낸 것을
후회 했습니다.

차장이 안 받았으니까 하는
묘한 자위도 해 가면서...

눈길 때문에 차는 예정보다
늦게 鎭安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읍이라고 생
각했었는데 의외로 다방이 있
고 극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행은 이
곳 出身 國會議員 全然相 農林
委員長의 배려로 금수여관이
란 곳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했던 우리들은
밥을 먹으러 오라는 전갈에 모
두 눈이 번쩍 생기가 돌아

재빨리 그릇들을 비워 냈습니다.

덕분에 아주 귀찮던 밥과 설거지 하는 수
고를 덜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었

馬耳山 산행기 安 喜 榮

입니다.

우리가 들은 방은 묘한 직4각형이어서 7사람이 눕기에 매우 좁았습니다.

더군다나 화장실 쪽이어서 비비고 좁 잤나 싶으면 발자국 소리와 기침 소리, 또 옆방인지 어느곳에서 두드득 이를 가는 소리에 계속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어느 분인지(?) 아주 「리드미칼」하게 잘더군요.

다음날 아침도 역시 여관밥으로 떼우고 鎭安을 출발해서 「사양」저수지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8시 15분 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馬耳山의 내력은 鎭安에서 4km되는 지점에 位置하여 말의 귀와 같이 생긴 봉

우리의 산인데 신라때는 <西多山>, 고려때는 <湧出山> 李태조는 <東金山>이라 부르다가 正宗때 <馬耳山>으로 명명한 天地개벽을 연상케 하는 신비한 산입니다.

東에 667m의 雌峰 西에 673m의 雄峰이 마주 서 말귀 모양을 이루는데 雄峰은 험해서 올라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한 50분쯤 올라 갔는데 벌써 말곶등까지 올라왔고 말 이마부분 가운데에 계단이 쪽 나 있었는데 우리는 그 계단을 밟고 올라 가면서 옛날 部族국가 시대 司祭가 하늘에 제사 지내러 올라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몸이 司祭로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 몸도 꿈쩍 못하고 경건히 조심 조심 올라 갔습니다.

다 올라 가니 꿈은 사라지고(?) 였습니

다. 숫마이산과 암마이산의 괴암절벽 천황문의 천연암굴인 취암굴에서는 청수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물을 떠놓고 1000日 기도를 드리면 아기를 낳는다는 곳입니다 어느 엄마가 떠놓고 갔는지 그릇에 떠놓은 물이 밤새 얼어서 동그랗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엄마 후보생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을까 생각하니 절로 숙연해 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서울에 계신 엄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산은 자갈을 넣고 「콩크리트」를 해놓은 것 같이 신비스러웠습니다.

고대와 현대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아주 특색있는

산이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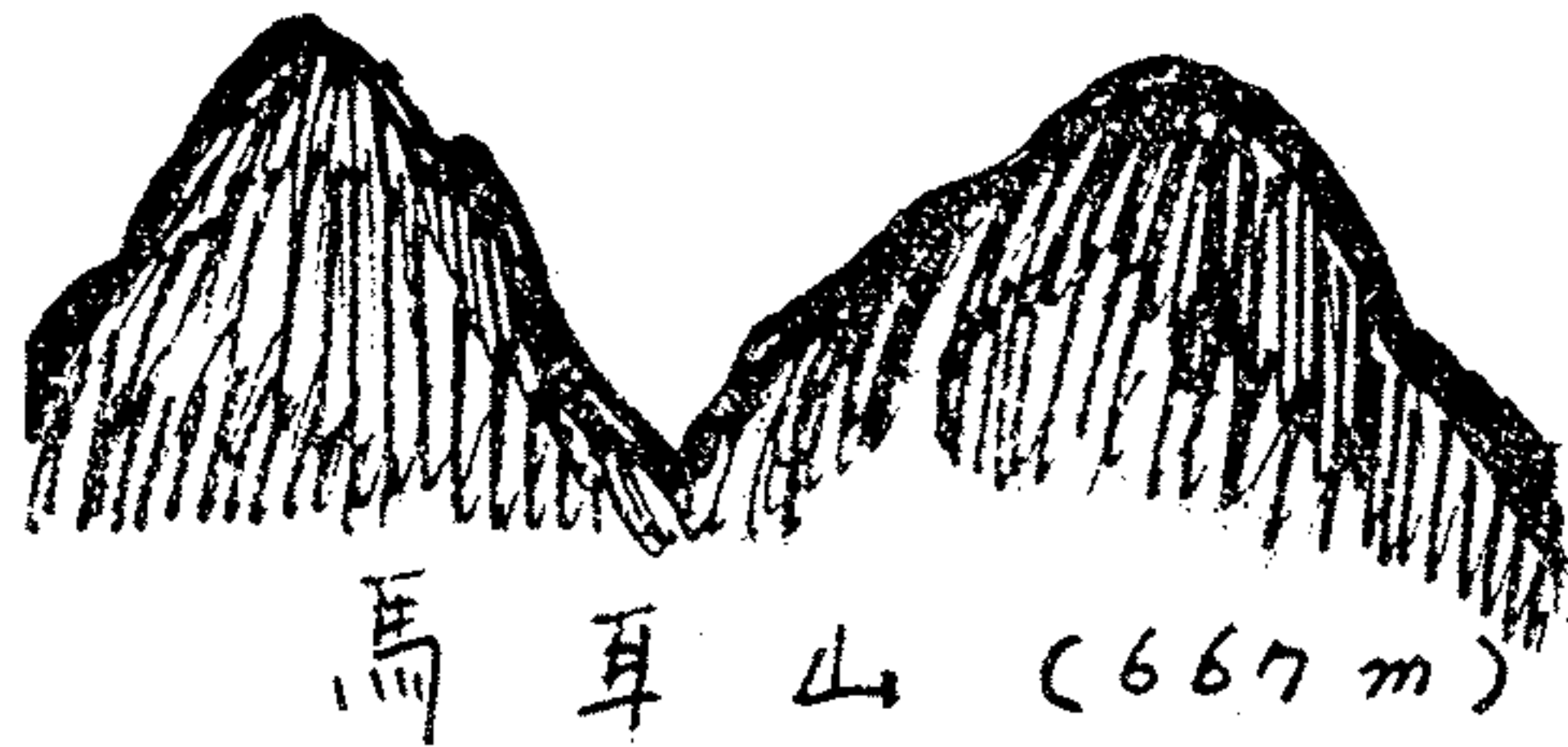
다시 넘는 곳도 계단이었는데 이곳은 아까의 경건함과 달리 낭만적이었습니다.

간간히 퍼지는 아침햇살은 금상첨화격이었고 옆으로 암마이산벽에는 모진 바람에도 날라가지 않고 남아 있는 흰눈들이 부채춤이라도 추는듯... 예쁜 빗살무늬가 풍상에 견디는 강인함을 엿볼 수 있는 그들도 여름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녹아버리겠죠.

만약에 내가 목하 진행중이었다면 갑돌이에게 이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줄 수 있었을텐데.....

조금 돌아가니 銀水寺라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절이었습니다.

첫 번 눈에 뜨이는 것이 땃돌위에 어수선한 고무신들의 나열, 그리고 할머니의



누빈 조끼에서 문명이 좋다는 것 보다는
섭섭함을, 그리고 황량함을 느껴야 했읍
니다.

위를 쳐다보니 솟마이산이 우뚝 솟아있
고 거기서 폭포 쏟아지는 광경이 보이는
듯 했읍니다.

아마 그래서 銀水寺인가 봅니다.
조금 구경을 하고 마이산을 뒤로 하고 내
려가니 塔舍입니다.

지금부터 80여년 전에 이갑용처사가 낮
에는 기도하고 밤에만 돌을 모아 쌓아 올
린 10여년 걸렸다는 돌탑입니다.

보통 볼 수 있는 탑이 아니고 가서 들면
아주 가볍게 들릴 것 같은 그 작은 돌들
의 무리들이 어찌면 그 모진 바람에도 쓰
러지지 않았는지? 신통력이 깃들어 있을
것 같은 그 탑에서 불가사의를 보았읍니
다.

약간 기우뚱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더
욱 묘한 불안감을 안겨 주었읍니다.

鎭安의 산들은 모두 나무가 없고 황야
의 무법자애나 나옴직한 그런 산들입니다

조금 더 걸어 가니 이산묘(驕山廟)라는
곳. 단군 이태조 세종대왕 고종등의 충신
과 순국선열을 봉안한 곳인데 음침한 방
에 조그만 상자들이 간격을 두고 서있고
앞에는 성명이 붙어있고 싸늘한 바람이 불
어 오는데 그들도 젊었을 때 나라 사랑을
누구보다도 했을텐데 이제는 한줌 흙이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삭막해
지고 인생이 허무해 졌읍니다.

이로써 마이산 관광은 끝났고 기다리고
있던 「버스」에 몸을 실으니 정작 산에는
오르지도 않았고 가벼운 「워밍업」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읍니다.

귀로에 全州 비빔밥이 맛이 좋다길래

한국 회관이라나요? 그런델 갔는데 성질
급한 사람 못기다릴만큼 늦게 나오더니
육회를 얹어 주는 비빔밥은 고장의 특산
물만큼 맛 있는것 같지가 않았읍니다.

다방의 내부장식도 서울과 다를 바 없
고.

다시 論山으로 빠져서 관측사에 들렀읍
니다.

저 유명한 <은진미륵>이 있는 곳입니다.
보물 제 217호, 967년에 해명대사가 세웠
다는데 불신삼단 머리위에 이중의 보관을
쓰셨고 둘레에 풍어를 달았는데 바람이
불때마다 딸랑대는 풍경소리가 듣기 좋았
읍니다.

높이 24.5m 가슴둘레 11.2m 동양 제
일이라지만 나같은 문외한의 눈에는 그것
은 크다는 느낌 밖에는 별다른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없는 것 같았읍니다.

그 바로 뒤에 돌무덤위에 50cm정도가
될까한 아가부처님이 앉아 있었는데 극과
극을 비교해서 더욱더 크다는 인상을 강
조하려는가 싶었읍니다.

이제 모든 관광계획은 끝났고 무사히
서울의 불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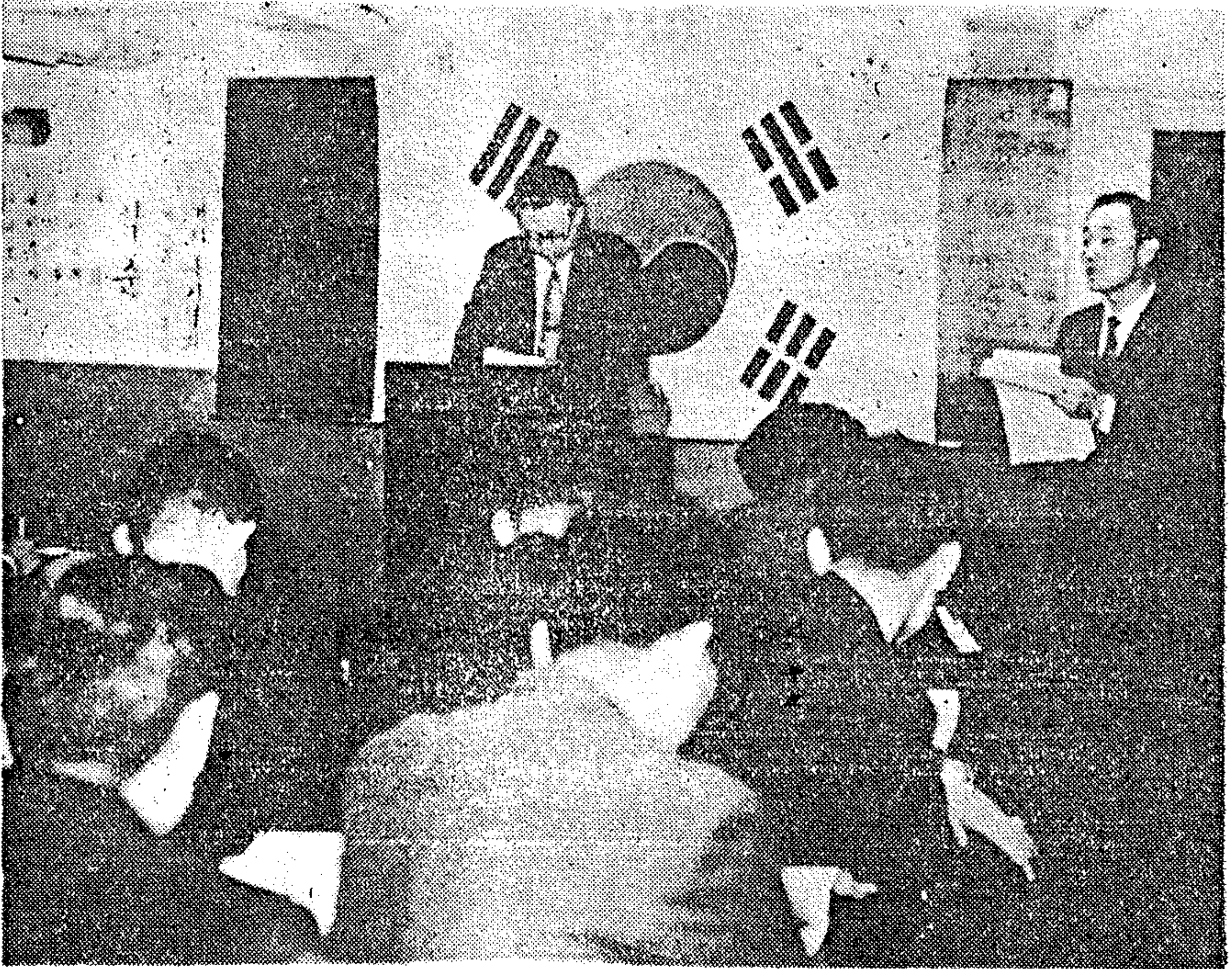
도착이 7시5분 내일 출근하면 우리는
멋 있는 관광을 하고 왔다고 順이랑 玉이
에게 마음껏 약을 올려야 겠읍니다.

(國會速記課)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第4回 定期總會



日時 1971. 12. 30

場所 國會速記士養成所

附議案件

第1號議案 1971年度 決算承認및 監查報告의 件

第2號議案 1972年度 事業計劃및 豫算案承認의 件

第3號議案 任員補選의 件

會務報告

1970. 12. 30. 제3회 정기총회에서 여러분께서 중책을 맡겨주신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간의 책무를 수행하고 그간의 저희들 수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감사

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간 저희들은 총회의 제반 수임사항을 완수하기 위하여 12차의 이사회와 9차의 부장 회의를 갖고 전 임원이 명실상부한 협회로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理事選任 및 執行部署決定

총회의 수임사항으로서	이 사	柳 智 永	金 仁 寧
梁 源 龍	申 世 華	盧 英 民	李 康 賢
李 龍 洙	蔡 康 熙	崔 秉 秀	高 用 培
崔 錫 模	韓 奉 永		

이상 12명을 理事로 선임하고 第 16次 이사회를 1971. 1. 4 에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서를 결정하였습니다.

총무부장	유 지 영	총무이사	채 강 희
재정부장	김 인 영	재정이사	최 병 수
선전부장	양 원 용		
사업부장	신 세 화	사업이사	고 용 배
외국어부장	노 영 민	무임소이사	최 석 모
연구위원장	아 강 현	무임소이사	한 봉 영
자격심사 위원장	이 용 수		

2. 國庫補助金受領

국고보조금 총액 972,000 을 다음과 같이 분기별로 수령하였습니다.

1/4	71. 3. 19	24만 3,500원
2/4	71. 5. 30	23만 5,500원
3/4	71. 9. 12	22만 6,500원
4/4	71. 12.	21만 7,900원

(266,500원중 문공부 자체에서 5% 자체조정으로 48,600원이 감액된 액으로 미수령)

3. 無料速記講習

가. 放學을 利用한 講習

방학기간을 통해서 일반인의 속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보급을 목적으로 조선일보사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기	일	시	장	소	법	식	인	원
동	71. 1. 12~2. 2		동	방속기학원	동	방	국어	812
				시사영어학원	그	레 그	영어	245
하	71. 7. 19~8. 7		고	려학원	고	려	국어	415
				동방속기학원	동	방		
				시사영어학원	그	레 그	영어	102

나. 各級學校巡廻講習

협회 무료속기강습의 일환인 학교순회강습 금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1) 德成女子大學 6. 21~7. 21 Gregg 104名

(2) 中東高等學校 6. 28~7. 28 일과 70名

다. 法院 및 檢察書記講習

법원 및 검찰서기 32명에 대하여 71. 9. 2~9. 21까지 20일간 동방속기학원에 위촉 실시 하였습니다.

다. 言論機關 從事者에 대한 講習

동아일보사 기자에 대한 실무강습을 71. 1. 5~2. 20까지 45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성공리에 완료하였습니다.

4. 第4回 全國 速記 競技大會

71. 8. 31 조선일보사 및 대한상공회의소 후원으로 정·준급 27명이 참가하여 각자의 기량을 겨누었는바 정급에 있어서는 1. 2. 3등 모두 98%라는 정확도를 발휘하여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5. 第2回 全國 速記士 資格檢定 試驗

71. 8. 28~30 양일간 문화공보부 및 조선일보사 후원으로 개최 국어 61명 영어 30명이 응시 국어에 38名, 영어에 20명이 각 급수별로 합격 되었습니다.

6. 會誌發刊

회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있는 「速記界」는 회원 각위의 의견과 선배 여러분의 고견을 실어 季刊誌로서의 면모를 차츰 갖추어 가면서 금년도 발행분 4회를 완간하였습니다.

7. 速記學術誌發刊

1,200매에 달하는 방대한 원고 수집을 마치고 1차적인 편집과정까지 끝내고 현재 감수 위원들의 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미수령으로 72년 1/4분기 중 인쇄 배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8. 名譽會長推戴

71.9.1 국회의장 白斗鎭氏를 본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9. 體育大會

71.4.17 회원 상호간의 친선과 체위 향상을 도모코자 탁구와 배구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10. 72年度 國庫補助金

72년도 국고보조는 71년도 보다 194,000원이 적은 778,000원이 제상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민간보조금 20% 일률적 삭감 원칙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불충분 합니다. 이는 當協會가 1년간 걸어온 회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며 보다 많은 실적을 올리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과 이사 여러분이 재임중 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협회가 이만큼 성장 할 수 있었음을 재삼 감사 드리며 이제 희망의 새해를 맞는 72년에는 좀더 유능하고 협회를 위해 힘쓰실 새 이사장과 이사들을 선출하시어 본협회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 더욱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71. 12. 30

이사장 安 仁 榮

第 1 號 議 案

1971年度 決算承認 및 監查報告의 件
(原案通過)

1971年度 決算書 (1971. 1. 1 ~ 12. 25)

세 입			세 출		
관 항	예 산 액	결 산 액	관 항	예 산 액	결 산 액
기 본 수 입	130,000	100,100	회 의 비	136,000	43,020
월 회 비	120,000	96,200	경 상 비	168,000	45,656
입 회 비	10,000	3,900	수 용 비	60,000	0
사 업 수 입	940,000	895,400	사 업 비	1,912,200	1,097,000
광 고 비	100,000	39,000	경 기 대 회	193,000	163,000
수 수 료	720,000	836,200	속 기 강 습	557,200	500,200
수 험 료	50,000	20,200	학 술 연 구	114,000	20,000
찬 조 금	540,000	141,200	학 술 지 발 간	360,000	18,000
잡 수 입 금	3,434	3,886	회 지 발 간	420,000	257,620
보 조 금	972,000	705,500	검 정 시 험	161,000	47,500
이 월 금	80,766	80,766	체 육 대 회	107,000	90,680
			판 공 비	150,000	135,880
			예 비 비	240,000	208,910
			이 월 금		396,386
계	2,666,200	1,926,852	계	2,666,200	1,926,852

감 사 보 고 서

협회 정관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1971년 12월 25일 현재 본 협회의 재정 현황을 감사한 결과 결산서와 상위 없음을 보고합니다.

1971. 12. 25

감 사 金 永 善
林 來 炫

第 2 號 議 案

1972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案承認의 件
(原案通過)

72年度 事業計劃書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명	예 산 액
속기경기대회	193,000	회 지 발 간	404,000
무료속기강습	600,000	자격검정시험	130,000
방학이용	421,000	체육대회	129,500
법원검찰서기	49,000		
인론인	76,000		
학교순회	54,000		
속기학술연구	92,000		
속기전시회	489,000	계	2,037,500

72年度 歲入 歲出 豫算書

세 입			세 출		
관 항	예 산 액	산 출 근 거	관 항	예 산 액	산 출 근 거
기본수입	159,000		회의비	134,000	
월회비	144,000	100×120×12	정기총회	50,000	
입회비	15,000	300×50	회의비	84,000	
사업수입	1,100,000		경상비	96,000	
광고비	80,000	20,000×4	사무비	96,000	
회지대	40,000	100×100×4	수용비	60,000	
수수료	900,000		사업비	2,037,500	
			경기대회	193,000	
검정수수료	50,000	500×100	속기강습	600,000	
경기수수료	30,000	300×100			
찬조금	320,000	명예회원	학술연구	92,000	
잡수입	4,114	은행이자	전시회	489,000	
			회지발간	404,000	
보조금	778,000	국고보조	검정시험	130,000	
			체육대회	129,500	
이월금	396,386		판공비	150,000	
			예비비	280,000	
계	2,757,500		계	2,757,500	

第 3 號 議 案

任員補選의 件

會 長에 金 龍 泰 氏 (國會議員)

副會長에 金 鎭 基 氏 (國會速記擔當官) 를 滿場一致로 選出하였다.

따라서 協會任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名譽會長 白 斗 鎭 (國會議長)
 會 長 金 龍 泰 (國會議員)
 副 會 長 金 鎭 基 (國會速記擔當官)

顧 問 鮮于宗源 (國會事務總長)
 顧 問 李 鎬 賑 (國會事務次長)
 顧 問 任 哲 淳 (國會專門委員)
 顧 問 權 孝 燮 (國會議事局長)
 顧 問 吉 基 祥 (國會委員局長)
 顧 問 崔 興 俊 (國會速記課長)
 顧 問 劉 龍 珪 (國會總務課長)

指 導 委 員 姜 駿 遠
 指 導 委 員 金 星 漢
 指 導 委 員 李 東 根
 指 導 委 員 張 基 泰

理 事 長 安 仁 榮
 總 務 部 長 柳 智 永
 總 務 理 事 蔡 康 熙
 財 政 部 長 金 仁 寧
 財 政 理 事 崔 秉 秀
 宣 傳 部 長 梁 源 龍
 事 業 部 長 申 世 華
 事 業 理 事 高 用 培
 外 國 語 部 長 盧 英 民
 研 究 委 員 長 李 龍 洙
 資 審 委 長 李 康 賢
 理 事 崔 錫 模 韓 奉 永
 監 事 金 永 善 林 來 炫

會 務 日 誌

72. 1. 4 第28次 理事會
1. 第10回 速記講習會 開催의 件
 2. 京鄉新聞社 記者에 대한 강습
1. 4~15 言論機關중사자에 대한 강습(경향신문기자)
1. 5 第29次 理事會
1. 部署再編成
1. 10~15 第10回 速記講習生 接受
1. 15 第30次 理事會
1. 第10回 速記講習 增班에 대한 件
1. 17 第10回 速記講習 開講式 (YMCA)
1. 28 崔致煥前會長에 대한 감사패 증정
1. 31 改正速記料金表 配付
2. 1 第31次 理事會
1. FY72 事業費 配定
2. 4 第1次 研究委員會
1. 委員選任
 2. 72年度 研究委員會 事業承認
2. 5 第10回 速記講習會終了
2. 12 第32次 理事會
1. 專門誌發刊에 대한 件
 2. 研究委員 選任報告
2. 18 第2次 研究委員會
1. 專門用語 蒐集班 編成
 2. 各分野別 專門用語蒐集 着手
3. 6 「速記總覽」第1輯 發刊 編輯委員會
3. 15 「速記界」編輯委員會
3. 21 「速記總覽」第1輯 發刊配付

〈總務部〉

속 기록료금안내

本協會에서는 速記料의 現實化를 위하여 지난 1970年 3月 1日 이후 施行해오던 速記料金을 改正 引上 다음과 같이 施行하기로 決定 하였습니다.

속 기록료표

구분	단위	속 기록료	비고
회의 및 강연	1 시간	10.000원	주주총회
좌담회	1 시간	11.000원	대담포함
재판 및 방송	1 시간	12.000원	
녹음재생	1 시간	10.000원	
구술	1 시간	8.000원	저술, 비서 속기 등
외국어	1 시간	20.000원	영어, 일어

- 단, 1. 요지작성료 : 속기록 외에 매 시간당 5,000원씩 가산함.
 2. 긴급번역료 : 속기록 외에 매 시간당 4,000원씩 가산함.
 3.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함.

위와 같이 결정 시행함

1972년 1월 1일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編輯後記

○ 거대한 것만이 價値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안다. 작은 일에 忠誠하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일을 치를만한 人物임을 우리는 믿는다. 무슨 대단한 얘기를 꺼내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책은 작은 것이라도 좋다. 두툼하다거나 묵직한 감촉을 손끝에 안겨주는 것이 이 책의 취지는 아니니까.

우리의 책은 고통전물처럼 「建設」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成長」하는 것이다.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이다. 태어남의 고통을 아는가! 껍질이 찢어지는 아픔없이 열매는 익지 않는다.

○ 최근 수년간 속기계에는 아직 풋내(?)도 가지지 않은 젊은이들이 서서히 진출하였다. 이제 속기사의 평균연령도 무척 젊어 졌으리라. 올봄에도 신인들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디 이들 모두가 活力素가 되어 주었으면, 새 바람을 불어넣는 구실을 다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致)

○ 「속기계」도 이제 9호로서 세 돌을 맞았다. 편집이 끝났다는 후련한, 안도의 숨을 내쉬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데, 그래도 아직은 순진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인정해주면 난 웃어버릴까.....

아무튼 誠實을 生活信條로 내세우던 내가 나태를 일삼은데 스스로 놀라 버린다.

○ 결심 운운하는건 많이 망서리고 생각한 끝에 얻어지는 것인데, 또한번 서슴없이, 주저함이 없이, 誠實하게 일 해야 겠다고 결심 하려는건 너무 얄미운 말이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마음이어! (仙)

季刊 速記界

<第 9 號>

1972年 3月 31日 發行

發行人 金 龍 泰

編輯人 梁 源 龍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 1街 60-1

(75) 6987 · 6940

發 **祝** 展

國 會 速 記 士 養 成 所

所 長	權 崔 金	孝 興 鎮	燮 俊 基
副 所 長			
教 務 主 任			
講 師 (速 記)	李 崔 孫 申 鄭 金 金 李 禹 朴 吳	東 錫 弘 世 宇 敬 永 東 在 鍾 壽	一 模 基 華 鎔 萬 善 玉 忠 洽 東
“ “			
“ “			
“ “			
“ “			
“ “			
“ (國 史)			
“ (國 語)			
“ (法 制)			
“ (經 濟)			
庶 務			